東亞日報

本紙六面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金鐵中
印刷人 趙宜淳

平凡中의非凡

一

人間의天性에는 自我를無限大로擴大하고저하는希望이잇다 그럼으로慾望은 恒常限이업다 衣食住에不自由를늣기다가 衣食住가 어느程度의 滿足을주게되면 다시生活의 藝術化를 圖하고 藝術에서는 有形的美에 멈치지아니하고 無形的理想을 案出하야 宗敎에 이르게된다 사람이原始時代로부터서 現代와 갓흔文明的生活에到達하야온 經路를보면 반다시 物質生活에서 精神生活로만順序的으로發展되야온것이아니라 物質과精神이 서로交叉되고相合하야 生活意識의具體化를 中心삼아 同轉되고展開된것에不過하니 어느때에는 物質이主가되는것처럼 보이던時代도잇섯고 어느時代에는그와 反對로精神이 主가되는것처럼보이던時代가잇서서 一律的으로主從과前後를 區分하야말하기는어렵지만은 根本問題에잇서서 이모든具體的生活이 發芽되고交叉되며 調和或은混同되는現實을 지어내는것은結局人間의天性이無限한希望을所有함에因함이라고할것이다

二

그럼으로 現實의 生活場에서는各自가 各自의技能과形便으로生活을하지만은 恒常그現實生活보다는 優越한生活境地에로올지고저하는慾望은 끈칠때가업는것이다 그럼으로그날그날의얼핏生活事實을 處理하고그날의時間과勞力을 消費하는것을 질기지아니하나니 다시말하면 사람은 恒常그날그날의일에배여잇는平凡한生活에 滿足을하지아니하고 될수만잇스면그現實生活보다는 超等히出衆하야 萬人의驚服을바들만한 成功된生活을希望한다 靑年에잇서서 이素質이더욱히만흔것이다 過去에잇서서 英雄의生活를만히 欽慕하라고하며 敬慕하야오던것은 即靑年으로하야금 만히는 英雄的心術와技能을배우도록도와오던바이라고할것이다

三

勿論靑年의 氣慨와向上의目標가高흔곳에잇지아니하면 그生活이너머나 卑劣한곳에떠러지고마나니 그氣慨와 目標를恒常偉大한人物에두고 그를배호며 그人格을 自己人格化하도록 自己를訓練하고 自己를 引導하는것은 必要한일이다 그러나 이러한生活者에게서도 偉人外의人格을 輕蔑를배와서 自己外人格을向上하기爲하야 그에게敬意를表하는것과 盲目的으로 그偉人의人格이나事業에 盲服하야奴隸的服從心을가지는것과는 判然한區別이必要한것이다 그럼으로보아 在來의 歷史敎授또는靑年의 指導에 큰誤解가잇섯다는것을 認定하는同時에 이見解를現下生活에徹底식힐必要가잇다 다시말하면 現實에서 그날그날의生活事實을處理하야가는것은 다시말할것도업시 平凡한生活이오 厭症이나기 쉬운生活이나 그러나 眞理는 平凡에 잇다는것과가치 그대로밋지는아니하지만은 우리는理想에가는理그中에서

孫軍攻勢決定
一兩日中에戰鬪開始

孫傳芳軍의不利를傳하는바 그는全線守勢를取하기때문에二十三日부터攻勢로移하려하며南昌附近은危險하나王柏齡氏를破하고一兩日中에戰鬪를開始할狀勢라더라(上海二十四日發)

英對孫
二百萬磅補助?

英國이孫傳芳氏에게對하야二百萬磅을補助한다는說은全然無根하지는안한模樣으로某方面에서는頗頗히奔走中이라더라(上海廿四日發)

張韓兩氏入京=張學良韓麟春兩氏는二十四日入京하엿는데張宗昌氏의來京을待하야軍事會議를開하고吳佩孚援助와政局問題를討議할터이라더라(北京二十四日發)

湖北軍援助中止
奉派軍事會議決果

天津의張學良氏를中心으로한奉天派軍事會議에서湖北援助의件을討議하엿는바吳佩孚氏로부터自隷軍은武漢回復能力이充分하다는通電이잇섯슴으로當分間誤解를避하기爲하야出動을中止하자고意見이一致하엿다더라(天津二十四日發)

武昌城內降服氣分

武昌城內는降服氣分이濃厚하야開城치안하면叛亂이起할듯하다더라(上海廿四日發)

楊森南軍에對抗
近一萬兵을沙市方面에派遣

萬縣二十三日發至某所着電에依하면楊森氏는近近一萬의兵을沙市方面에派遣하야南軍에게對抗하기로決하엿스며又오래동안萬縣에碇泊中이던軍艦瀨田는廿三日朝下航하엿다더라(東京電)

閣員、各地로退去
北京은無政府狀態

杜內閣은今에窮迫하야二十五日의閣議도開會不能으로되야張國淦張志潭氏等閣僚도天津에赴하고又財政總長顧維鈞氏도二十五日楊村으로去하엿스며杜總理도一兩日中에北京을去할터이라는데事實上無政府狀態에陷하엿다 一方新閣組閣說이高하야上陸時大總統說도張作霖入關後가아니면決定치못할模樣이라더라(北京廿四日發)

張氏極力慰撫

杜總理의辭意表示에對하야張作霖氏는熱心時局維持에當하기를슴하는旨의慰留電報를送하야內閣改造問題에冷談한態度를示하는바이미辭表를提出한外交、財政、內務三總長은모다次長(奉天派)을代理總長으로推薦하엿다더라(北京廿二日發)

王寵惠氏辭表

王寵惠氏는二十二日夜杜總理에게衛戍總司令의辭表를提出하고二十三日朝鄕里寧津으로歸還하엿더라(北京廿二日發)

萬縣事件交涉
官民一致하야楊森氏援助
兩使의提出한條件

中國紙의報道에依하면萬縣事件에關하야서는同地官民이楊森氏를援助하야一致한行動으로써英國側에게提出한條件은左와如히即

一、沈沒當한汽船의生命財產을英國船會社에賠償식힐
二、英國汽船은各國汽船과同樣의待遇를受할
三、萬縣住民의損害賠償
四、英國軍艦의責任者를英國政府가處罰하고中國에謝罪할事

等이며又吳佩孚氏는盧金山氏에게調停方法을命하얏는데一方英國側의要求는即

一、英國汽船의安全한航行을保障할事
二、萬縣萬通兩船의釋放
三、損害賠償等으로此中第二項은解決하얏슬터이나、萬縣의各團體는後援、雪辱等의會를設하고一致團結로英國에對한다더라

國際聯盟에서
對英正式抗議
萬縣事件으로中代表가

國際聯盟理事會에新加入을許可한中國代表朱兆莘氏는昨者中國萬縣에서英艦隊가砲擊을加한事件에對하야聯盟總會席上에서正式으로抗議하되此로因하야一千以上의家屋과一千以上의人이死亡하엿다고稱하고聯盟이此를考慮하야此解決을促하기를請求하엿스며朱兆莘氏는更히去七、八兩月中英商船은全速力으로楊子江을溯航하야中國船舶을沈沒식히고百名以上의中國人을溺死식히고도不顧하엿슴으로中國側이此에抗議를提出하자英艦은村落을破擊하야數百餘의死者를出하엿다고說하엿다더라

英代表의辯駁

=別項朱兆莘氏의抗議에對하야英代表『로바트、세실』卿은聯盟總會席上에左와如히辯駁하엿다더라(제네바廿四日發)

中國이前記事件을國際聯盟에持出한行爲는實로可驚할바이다大蓋英國의報道는中國側의言과不一致하다又英國에서는本件에就하야서는地方官憲과交涉하야此를解決하려하는데朱兆莘氏가本件을早急히聯盟에持出한것은形勢의緩和를助하는것으로는信用할수업다云云

英國地中海艦隊
一部、急據中國에向發

地中海『마르타』島에碇泊中인英吉利地中海艦隊第三支隊의驅逐艦九隻은至急히東洋艦隊에配屬하라는命令을受하고中國에向하야出發하엿는데同支隊는從來希臘에잇든것이라더라(倫敦廿三日發)

英艦又復被射
沙市下流에서

沙市의下流二十五哩의地點에서又復英國軍艦『스카라부』號가中國兵에게小銃射擊을受하엿는데同艦은直時機關銃及三吋砲로써此에應酬하야겨우乘員의死傷을免하엿다더라(上海廿三日發)

錢莊休業續出
官憲壓迫으로

中國側官憲의壓迫과金融維持會의警告等으로因하야休業又는閉店한錢莊은奉天省城內에만이미十一處이라는데더욱休業할者가續出할模樣이라더라(奉天電)

互惠協定으로
日中條約締結?

日中通商條約改正에對하야外務省은中國이完全히關稅自主權回復外지는列國의利益과中國의面

沿海縣에서
日本船被擊

四、五日來泊『오로』警察署에서는何事인지秘密裏에取調中이라는데探聞한바에依하면去九日來沿海縣에出하엿든泊『오로』町所有의小型發動船安洋丸이『네카스트리』附近에서露國官憲에게發砲되야乘組員五名中一名의胸部를貫通하야生命이危篤하고他一名이重傷을負하엿슴으로同船도最大速力으로泊『오로』로歸하야負傷者는目下泊『오로』病院에收容加療中이라더라(眞岡電)

佐竹次官慰撫
若槻首相이

佐竹鐵道政務次官辭任問題에就하야井上鐵相은二十四日若槻首相을訪問하고首相의至今直時齊木次官을辭任식히기어려운事情을述하야佐竹氏를慰撫하라고懇請하엿슴으로鐵相은此를諒解하고二十五日佐竹次官에對하야首相의意를傳할터이라는데佐竹氏도이제다시辭表를撤回할는지疑問이라더라(東京電)

軍備縮少方式
佛蘭西代表의演說

國際聯盟總會에서佛蘭西代表인『봉쿠르』氏는演說하되軍備縮少에關하야何等方式으로든지國際管理의方法을備치안은境遇는佛蘭西는此에關한如何한國際協定에도參加할수업다고斷言하고同時에其國際管理도國際聯盟에서管理하는것이조라고指摘하고更히說을進하야余는地理的情勢及廣大한大洋에保護되야軍備縮少를簡單히遂行할수잇는諸國에對하야는羨望에不堪한다此에反하야歐洲大陸에잇는吾等國家의形勢는特種의考慮를要求한다即今日의戰爭은將軍이그軍隊의힘만으로써勝利를得키不能한바그는即各國의潛在的戰鬪力發揮에依하야決定되는것이라하엿더라(제네바廿三日發)

全部削減?
新規事業費

三億에近한各省豫算槪算에對한主計局의查定은이미司法農林內務海軍의四省을終了하고現在遞信省所管의槪算査定中인바歲計總額은十七億을突破할狀態에잇슴으로主計局은各省의新規事業費는거의全部削減하고緊縮政策의實을擧하려고苦慮하고잇다이때문에豫算閣議의各省의復活要求는例年보다더욱猛烈하게될터이라더라(東京電)

大正十五年度
歲入出現計

大藏省調査大正十五年度國庫歲入出現計及前年度比較는左와如하더라(東京電)

經常部合計		一八二六四〇、三三六圓
比昨年	增	六四五七、五七一
臨時部合計		三〇〇六、七七七
比昨年	減	四九七、〇六一
歲入總計		一八、五六四七、一一三
比昨年	增	一四八五、五〇九
歲出은		
經常部合計		一三五〇、一九八、一三五圓
比昨年	增	三三、八三一、六二五
臨時部合計		九九八、八〇〇、八二一
比昨年	減	三、〇〇四、七三三
歲出總計		一四九、〇九九、〇六六
比昨年	減	七、二三三、〇一六

愈出愈醜한
東京政界葛藤
戰鬪를決定한本黨

政界의葛藤은愈出愈醜하야政情은益益不安하게되고政局의前途亦容易히豫斷키不能한狀態를示하는바이사이에잇서朝野兩黨及研究會가果然如何히策動할는지는各方面共히非常한興味로써觀望하는바이다即政友會는朴烈問題를擧하야猪突的으로內閣彈劾의計를樹立하고모든手段을베풀고잇슴에對하야政府側은더욱本黨의態度를樂觀하며本黨은從來와가치政策本意를口實로하야容易히出戰치아니할것이라고期待하고잇섯다그런데本黨은突然히床次總裁가朴烈問題는政策問題를超越한國家의重要問題이라고政府에宣戰을布告하얏슴은政府側을驚愕식히는同時에政界에多大한衝動을與하얏다政友會가政權獲得을爲하야發狂하고잇슴은野黨의立場上으로當然한일이나本黨이野黨的立場을明示한것은그裏面에깁흔事情이存在함을認定할수잇다元來本黨은第五十一議會當時憲政會와妥協한바此는解散回避도그한事情이며更히妥協의報酬로서近近政權의圓滿授受를期待하엿스나首相은議會後그러치안키때문에本黨은多少不滿을抱하기始作하얏섯다그리고本黨은松島事件의進展에依하야若槻首相은內閣을不得已抛擲할것이라고생각하고다만時期를기달이든바容易히그時期도到來치아니하며거긔에朴烈問題가起하기때문에床次總裁는그好機를利用하야若槻首相을訪問하고婉曲한言語로써體面조흔辭職을勸告하엿스나首相은單只辭職의念을示하지아니하엿슬뿐아니라도리허政府의强硬한意思를表示하엿슴으로床次總裁도黨內外의情勢를考察하야畢竟戰意를表現하게된것이라더라(東京電)

內閣倒壞
…陰謀發覺

內閣倒壞陰謀事件이새로히發覺하야警視廳刑事部는二十四日朝

都市計劃
事業財源
아즉準備時代

都市計劃은朝鮮將來에重要한政策의一인바그總經費는莫大한金額에達하야貧弱한朝鮮의自治團體로는此費用을負擔할수업슴으로都市計劃을實施하기爲하야는아모러케든지大部分을國庫의補助에待할수밧게업스나關東震災以來東京政府의財政도窮迫하야極端의緊縮方針을取하고잇슴으로朝鮮의都市計劃도中途에서全然挫折하야버렷다總督府로서는都市計劃課를新設하야至今의京城土木出張所長本間技師를課長으로任命하고都市의完成치안는안에大體의都市計劃案을樹立할터이며京城、釜山、大邱、平壤、仁川의五大都市에此基本調査를命하야그後에都市計劃令을發布할터이엿든바努力한計劃도財源의點으로沈滯되야버렷다그러나各都市에잇서서는基本調査의結果모다理想案이란것을作成하야市區改正上下水道等의完成을急한者부터實施에着手하고建築上의制限其他를하는데全部大都市計劃으로見하면日暮道遠의感이잇다그財源辦出로因하야各都市共히苦心하고잇다平壤電氣事業의府營은對平電關係뿐만아니라此方面의問題가勿論包含되고更히京城府의受從者負擔으로因하야府條例을發布할計劃에至하야비로소都市計劃의具體化가表面的으로되엿스나더욱日本內地와달니此에依하야大部分의經費가辦出된다고생각함은큰誤解이다그收入增加는大體에잇서생각보다折半도못되는것이잇다또歲入의自然增收及新稅의創設도잇스나아모러튼지二億圓을計上된京城府의大都市計劃으로見하면九牛의一毛로要컨대朝鮮의都市計劃은民間의實力이充實하고政府가積極方針의政策에移하는날외지는그準備時代라고할수밧게업다더라

罷業問題解決로
廣東軍의勢力擴大
日本에도代表派遣諒解運動

오래동안英國과廣東政府間에問題되여오든罷業問題는今回急轉直下로되게되엿는데그結果는過般來福建汕頭方面으로부터陳炯明軍이廣東을엿보고又江西軍이廣東軍討伐에出하엿슴으로俄然窮境에陷하엿든蔣介石軍이莫大한勢力을加하게되엿다即反革命軍의後援者인英國과諒解를遂하엿기때문에緊急香港政廳과一旦決裂된交涉을再開하야英國의條件을容認한듯하다如斯히하야蔣氏는吳佩孚氏를驅逐한一方江西의孫傳芳軍에對하야主力을專注하게되엿다又蔣介石氏는當初의目的대로楊子江流域을席捲하야勢力扶植에努力하는他方奉軍의新雲鶚等과秘密裏에妥協策을講究하야心中王士珍政府樹立을計劃中이라는바今後廣東派의勢力이益益擴大될形勢이다又蔣氏는日本의諒解도求하려고代表梁尙晝를渡日식혓다더라(東京電)

白頭山覲參 (四八)
崔南善

마음내池中의物

우리가여기잠깐白頭山建國說話의通性에一瞥을준은 決코그것의說話學的考究를試하려함이아니다 다만여러說話에共通되는要素와 밋그構成이 어떠케만히自然한約束에因한 事實的關係로서그背景을삼앗슴을밝혀서眼前에보는 우리韓秉華의위이 事實그대로어떠케說話的입과 또事實로든지 說話로든지그것이 어떠케傳統的要素를가초앗는지를보이고 다시 내거서는이韓秉華王國의生成과形勢가 실상當年의 金이나 淸의後援期에 比하야서 도로혀順便코盛大할뿐가저 진실로有爲한人物이可爲할機會를利用하얏슬진대 어떠한風雲의變幻이裏로서 醞出될는지 모를만하엿건마는 不幸히 그러치못하얏섯슴과 그러치못함과 아니그그러치못할것을 에달워하고吊傷해주려함이다 모처럼 조흔事機와 또여러번運命의特寵까지를어덧건마는 蛟龍이마츰내池中物대로말고 大鵬의 깃이쌔기도하고 부등깃까지도 친해 扶搖大空에 구름한번을 떨처 보지못한것이못내앗갑고 괴막히기때문이다 과연분분한일이잇기로이다

最近百年의東方은 무엇으로든지關格時代요手足厥命時代이엇다 民氣로나 그發露인文化로나 이모든것을담은大局의形勢로나 그生命을流通하고 그停頓을推進하야 온갓方面으로사관을트고 同生散을쓰지아니하면 모든것이 西人의下風에서고 白閣의凌路에들어 大東世界의意氣가 쓸려서똥개천에싸지지 아니하면 말지아니할밧게업을運命이엇다 온갓惑業의流轉을깨치고 모든腐爛의傳統을떨허서 오래동안形式道德空妄哲學 鐵鎖的階級에눌려죽게된 東方心東方手의生脈을터주는 또거운運動이생기지아니하면 아니될판이엇다 新生의빗과빗 그생불이기어히東方精神의發電所요東方風雲의震源地인白頭山中으로서發出하야 北方의雲若으로써 一切南方의一남은 울다쓸어 엄시하고 地大大地的一大革命을 맨들어내지아니하면 東方은 窒息할밧게업섯스며 偏屈될밧게 업든것이다 이때에하누님께서는 이큰것할무당의알을 白頭山인卵器속에너흐시기를이커버리지아니하엿스며 다시그學步地요試演場일滿洲一局을한참은窓曠에버리기도하고 한참은西淸東日의抗爭地도만들고 또한참은北陸南島의交衝點을짓게도하야서 괴왕金에게고 淸에게고다큰누고에게고 며개다라옵게구시든하누님이 이번에야말로한번활소하게 모든順便과機會의下賜를푼더분하게하섯것마는앗가올손韓秉華란말이잘싸지를못하엿스며 싸지고도 잘자라지를못하엿스며병아리대로늙는怪想을나타내게되엇다

東方世界의새임자가이래서나올듯뭉그러지고말때에 蒙古는얼이싸지고 朝鮮은다리가부러지고 中國은사개가물러나고日本은弱馬卜重에 할닥할닥하는숨이턱에다하서 팔닥어리는채졈졈매게되엇다. 어허韓秉華란병아리한마리가 될대로되지못한結果가 어떠케심하게우리눈의우슴을눈볼로써밧고아갓나생각하면애석키지아니할것인가

아마도白頭山날개에품것다가골코새지못한알도古今에작음리업다 그러나 떼가떼인만큼關係가關係인만큼 韓秉華이사람의병아리대로그만두는일처럼남의속을태우는일은업슬것이다 時節은또한번굴으고 機會가또한아닥쳐와다면왓다 北國의붉은손이 튼튼한집행이를 南方에찾고잇다 그러나郭松齡을못듣고 멀니蔣介石까지를차지면서도 손밋헤잇는이韓秉華는잇는줄조차모르도록 남에게存在를忘却하게된것이 괴막힌일아니냐 그래괴막히는일아니냐 어떠케켜華로운소입으로쏵힌큰펑대며 그런데어떠케 우숩게 쌉으러진 불상한韓秉華여 하누님은그처럼커를생각하섯건마는 그는넘어도생각해준보람이입시하엿다 모처럼큰소임이그에게맛겻섯건마는 그는넘어도맛긴뜻을커버렷다 天下를뒤흔들라고 白頭山이라는槓桿을주엇더니 松花江작은두던을못들고 모지름을쓰는것이그만그의能事가되엇다 어허그리하야東方의그믐이 그에게거치려다가 새우지못하는때에 그의업골은진흙에封한바ㅣ되고 그의일흥은 허수아비의귀싹으로깁다케둘어가버렷다 마츰내는그勢力과體面의唯一한保障인三千手兵까지 昨年秋間에吉林督軍에게解散命令을밧게되엇다。진흙구덩이에가친龍이 발톱마저떨어지게되는셈이다。 어허이것이그를爲하야 슓허할일인가혹시우리를爲하야 스스로슓허할일일가 구어싸지노흔것을거두어쓰는氣力조차업시된형을이 이에게잇든지 저에게잇든지나는이개와와이벼돌덤이를못들고 하용업는눈불을 주줌이흘리지안치못하얏다。희미한묵은자최에서보담 분명한眼前의事實에 것잡을수업는 더큰感慨가업슬수업다。

橫說竪說

◇例의張作霖이、所謂幣制統一을强制하야、各處의財界는、大恐慌中이라한다、民心不統一이더무서울걸

◇元馬賊으로、現奉天王이니만콤、相當히問題의人物인것은勿論이지만은、橫竪子와는배우因緣이깁다、原來作霖의作亂이橫竪式인까닭

◇國粹博士上杉愼吉君은、帝大敎授의椅子까지、抛擲하고、普選即行運動에、驀進하리라든가、그思想의進步？退化？頗히疑問博士

飛機構入使命
奉軍事顧問向羅

張宗昌氏의最高軍事顧問伊太利人『에프랄라니』中佐는二十四日朝橫濱入港의『로시아』號로上海로부터到着하엿는데中佐는奉天軍의重大使命을帶하고飛行機를買入키爲하야羅馬로向하는듯하다더라(橫濱二十四日發)

朝鮮民族更生의道 【二】
生氣振作—理想樹立—更生確信—不斷努力
文學士 崔鉉培

우리는世界사람임을否認치아니하는同時에 그보다먼저朝鮮사람인것을認識하려한다 우리는아모리하드라도 가장먼저그父의子女이며 그兄弟姉妹의兄弟姉妹이며一里에某이며 一都에某이다 이리하야朝鮮의某이다 우리는아모리하드라도朝鮮民族의一人으로世界人에參加할수밧게다른道理가업다 우리의世界人類上地位가 아모리하드라도朝鮮이란것을떠날수가업는것과갓치 우리의喜怒哀樂의感情과發憤忘食의努力이 또한朝鮮이란것을떠나지못한다 그리하야우리는世界를救하기前에먼저朝鮮을救하고자한다 아니우리는朝鮮을救함으로말미암아世界를救하고자하며 朝鮮民族을救함으로말미암아서世界全人類를救하고자한다 朝鮮의繁榮을圖하며朝鮮民族의更生發展을謀함이便是世界人이 우리朝鮮사람에게委任한獨特한任務이다 우리는무엇보다도먼저이獨特한任務를遂行하여야할것이다

第一章 民族的疾病의診察

그러면이民族的更生을正確히일우어내라면 무엇을엇더케함이가장必要하며 가장緊切할까? 이것이 實로우리의有意的活動의中心的問題이라할만하다 이最要英緊한中心的問題를 解明치아니하고는 모처럼하는모든努力이다 畢乃헛되게 水泡에도라감을免치못할것이다 나는생각하되 오늘날우리民族의更生을圖하랴면 가장먼저그現在의衰頹한狀態와 그原因을正視精察한然後에라야 그眞正한更生의方途를求得하겟다하노라 譬컨대醫者가病者를 治療함에는먼저 그病症을正診明斷하여야하는것과갓다 萬若그眞相과眞因을正視치못하고 다만그個個의末梢不健全한것을 一定한原理도업시 이것도해야하겟고저것도해야만하겟다고 분주할진대 이는마치醫員이患者의本病이어대잇는지를執症치못하고다만枝葉의病狀을除去하기에汲汲함과가타서 到底히그患者의快復을期치못할것이다 그러면朝鮮民族의眞正한現狀은 어떠한것인가 우리는먼저이것을明察하여야할것이다 나의보는바에依할진대 現代우리民族은一種의疾病에呻苦하는中이라한다 個個의有機體가 疾病을因하야그生의完全한 發展을遂치못하는것과가치 우리朝鮮民族이라는一大有機體도 어떠한慢性的疾病을因하야 그生命의自由發展을遂치못하고잇다 그러면그病名이무엇인가 勿論그枝葉的病은여러가지가잇겟지만은 나는그本幹的病疾은 衰弱症이라하노라 이民族的衰弱症은 譬건대 個人의神經衰弱症과恰似하야 살랴는意志가薄弱하며 살려는努力이不振하며 발아서意欲의所産인希望이업스며 努力의結果인幸福이란것은가지지못하고 다만失望과禍難이重疊한가운데에서辱된生을무겁은짐가치니이며 光明업는暗黑가운데에서苦痛의걸음을옴기고잇다 이것이우리民族的病狀이다 이제다시 그病狀을詳細히診察하겟노라」

凋落의秋、脫毛期接近
毛髮內服營養劑「玄華」의常用을推奬
「玄華」는가을에、重症後의脫毛時에眞正한信賴할毛髮의保護者이다 秋期脫毛는自然이라고하나放置치못할것이다 더욱히重症恢復期의脫毛는버려두기어렵다 特히「玄華」의常用을勸함
白熱的賞讚
養毛劑 內服藥 玄華
九大敎授 旭博士創製
錠劑 散劑의二種이有함
◎東京大阪各데파ー트藥品部及全國知名藥店에有함
本舖 日明製藥所
代理店 大木合名會社

○生徒大募集
東京自動車學校
平壤自動車講習所
○學則書送呈
平壤新倉里電車停留場前
電話五八四番
振替京城一四二二番

일축제류셩긔
朝鮮家庭에最適한
日蓄K十五號
日蓄조선소리판
品質이나、價格이
斯界의覇王입니다
(總目錄進呈)
定價二十六圓
京城黃金町
日本蓄音器商會
일축

秋期用肥料多數着荷
各種肥料具備
多數取引特別廉價
各種肥料 石炭 木炭 米穀 雜穀
平壤府竹典里一七一番地
大有商會
電話一三三三番

보는대로듯는대로 생각나는대로
□□□ 忙中閑人

公德이란무엇?

세상은 혼자사는 세상이아니다。다른사람과 함께살아가야하는세상인까닭에 제 욕심만채울수업는세상이다。남만위하라고하는것은 원래 무리한일이지만은 적어도저를위하는동시에 남을위하야야한다 대다수의남을 위하야는 자긔의욕심에 얼마간 희생을 하여야하며 어느뎡도까지는 희생도 달게바더야한다。이것이 이른바 공덕(公德)이다。

◇

이공덕에대하야 군자국(君子國)으로 자처하는 조선사회의현상이 엇더한지 눈에보이거니와 보고들리는 한두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

안즐자리도 색색한 연차에서 한칠반 들어 눕는자 만원된긔차전상에 짐싹을노는자 틈은배찜도 못커니와 떨티라라고 머리로 남의 궁둥이를 뚝지거나 런커나리려고 궁둥이로 남의배를 떠밀치는 실례란 구경하기도 긔가막힐디경이다。

◇

연극당 활동사진관 가튼대서 남의압호로만 당어안는자 담배서지는몰라도 가래춤을 함부로뱃는자、술먹고 지랄하는자、변소출입을 자주하는녀자、방정맛게 소리쌕쌕지르는녀자 등속은 또다 자긔의잔재주를 눈벌케하는 주해이다。

◇

활동사진변사가 한창설명을할때에 「빙수압시오ー 담배요 단배ー」하고 커다란소리를치며 돌아다니는광경은 북촌에이외에는 업는일이다。어린애기가 「예ー 쌕ー」하고 울때에 「아이고 요년석아!」하고 엉덩이를 찰석찰석따리는 부인네는 조선손님이 만흔 우미관(喜樂館)가 아니면 보기드문일이다。

◇

이것이 보고들리는 심상한일이라고 하지마라。이것이 누구나다하는 소소한 허물이라고하지 마라。항상이는 심상한 일인까닭에 아주심상하게될것이며 자긔에게는 소소한 허물이라도 남에게는 크나큰 폐해가되는까닭이다。

◇

사람만히 모히는 장소마다 「가래춤을함부로 뱃지말라」「담배를 먹지말라」「큰소리를 내지말고 정숙하라」「남을밀치거나 비비거나하지말라」「무엇을엇저지말아라」하는등 목패가만흔것을 보아 우리사회는 아직도이런목패와 인분이만흔것을 알수잇다

後發隊를逮捕코저 國境에秘密通知

권총단네명을검거하야취조하는한편 그들후발대를잡고저국경에비밀통지 檢擧된拳銃團과鍾路署

긔보‖시내종로경찰서고등계에서는시내모처에서권총과탄환을은익해둔것을발견하야압수하고그범인네명을톄포하야동서에인치하고작이십오일에일오기까지십여일을두고 비밀리에서 엄중취조중이라는데그들의취조는거의 뜻이나게되엿스니 그런 루자중가장유력한사람한명이그들의후발대로조선안에드러오리라는추측을한동서에서는국경방면에 비밀히 통지를 듯니어가지고그가들어오기를기다리는중이라는바 그를마저 톄포하기전에는사건내용도될대로비밀에부치여발표치아니하리라더라

學費困難으로自刎

일본인의학생이 지난이십이일 대구남룡강뎡(南龍岡町)이십삼번디 일인하숙옥 대하옥(大觀屋)내에잇는대구의학강습소(醫學講習所)생도일본인 서강희구마(西岡喜久馬)(二二)는 자긔가 거처하는 방안에서날카로운단도로써 자긔목을 찔너자살하려다가 맛침동맥이 끈치지 아니하야 죽지는 안코고민하다가대구 의원에뛰여가서 응급수당을바다 생명에는 관계업게되엿다는데죽으려한 원인은 가뎡이빈곤하야 자긔와농학교에다니는 아우두명의 학자를가뎡에서써보내는것을괴롭게생각한까닭이라더라(대구)

日本女子自刎

전라남도장흥군 장흥면 괴양리목수업하는 일본인회신의치(二五)는 자긔남편이 업는틈을타서지난십구일밤에 날카로운단도로자긔목을 씨르고부작히도죽어버렷다는데 그는원인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정신이상으로가치죽으듯하다더라(장흥)

仲裁하는朝鮮人을 獵銃으로射殺

―사소한싸흠에말린다고덤벼들어 엽총으로쏘아죽여― 靈岩사는日本人이

전라남도 령암군령암면내(全南靈岩郡靈岩面內)에잇는일본인 일야미일(日野彌一)(四七)은지난이십일 오후한시경 사냥총을가지고삽기를 잡으려고 산으로가다가술을 만히먹고 령암면한대리(靈岩面寒大里)김분수(金文洙)집에서김분수와연초전매국원이 그근처에왓다간일로말다툼을시작하던바 마츰그때에 장흥(長興)사는손긔인(孫基仁)(二八)이가현장에서 싸홈을말리엿든바 전긔일본인은함부로덤비여손긔인을발길로참으로그를때려 항하여 한번마당에너머트렷는바 그일본인은 그만그집부엌에 들어가서식칼을가지고전긔손긔인을 씰으려하는것을 여러사람이 간신히 말리엿섯는데 그일본인은 그래도부족하야 자긔가 가지고잇든렵총으로손긔인을란사하야 현장에넘어트리고도망을가는것을그곳에모혓든사람이 그자를잡으려하엿스나그는몰려오는사람에게 역시 총을견중으로할수업시잡지를못하고 여러사람 들이 총마저너머진손긔인을메여다가령암경찰서에가서그연유를고발하고손긔인은 그경찰서 압헤잇는고광희(高光熙)집에누엇다가이십이일오전 두시에 광주도립병원에 수용하엿던바 원치녹부에 열네곳이나 탄환이명중되야 피를만히 흘렷슴으로 복막염으로 이십삼일 오전한시에 무참히죽엇다는데 그날오후네시반에 검사입회로 즉시해부하엿다는바 경찰에서는 전긔가해자 일본인 일야미일을톄포하야 방금엄중히 취조하는중이라더라(광주)

不義關係를奇貨로 棄兒料를脅迫

―처녀로친척과정을통해생남후 긔아의뢰를바다서오십원편취― 一名이鍾路署에被捉

시내중학동(中學洞)모처에지난팔월삼일밤에 엇더한 사람이 나은지일개월가량 되어뵈이는 산에아히를 갓다바린사건이 잇서서관할종로서에서는그아히는경성부령으로인도하고그범인을수색하든 중그아히는 충청남도아산군(忠南牙山郡)에거주하는박청녀(朴姓女)(一八)‖假名‖처녀로 그친척으로 방금일본에류학중인박모(朴某)(三)‖假名‖와비밀히 정을통하야임신을한후박모로부터 경성에 올라와서 남문외 세부란스병원에입원해가지고 지난칠월칠일에 천

아비업는자식

음팔월십일에나흔김천만 【東門署管內의棄兒二名】

이십삼일오후아홉시경에시내인의동(仁義洞)일백삼십구번디조상옥(趙相玉)의집문안에나흔지한달가량된계집아이를강보에싸여내다버린일이잇섯고그와전후하야 시내례지동(禮智洞)일백오십륙번디 김태현(金泰鉉)의 집대문안에도 나흔지 일주일동안밧게아니되여보이는 게집애를강보에싸다내여버린일이잇서소관동대문서에서는서원을각각보내여 검사한결과 전긔김태현의집에 내다버린아이품에는음팔월십일나흔김천만(金千萬)으로아비는업다」하엿스는데 여러가지식이 분명하다하며 전긔조상옥의집에다 버린아희도 별다른물덕 증거는업스나 결코가세가어려운집 자식은아니요 엇던계집아희는 그집주인 김태현이 과부나 처녀의범행이 틀님업는듯하다는데 전긔김천만 이라는가당분간 부양케되엿스나 그밧게아히는 조상옥이가 부양을거절함으로 경성부로 보내엿다는바그로인하야 소관동대문 서에서는 관내의과부와 행실이불칭한녀자등을묵하수색중이라더라

女俳優가盜賊

털창에서노래단불러

얼마전에춘천(春川)에서개최된 백종장에흥행하든구파(舊派)김봉준(金奉俊)일행에의녀배우김옥주(金玉珠)(三)는방금춘천경찰서류치장에서밤마다목을노와노래를부른다는데 그는원적을경남함안군가야면검암리(咸安郡伽耶面檢岩里)에두고오래전부터 구파일행에 딸아다니든바강원도를진경찰서(鐵原?)에서 구가격오원사십전되는 마포류(麻布類)를절취하엿슴으로 그가치잡힌것이라더라(춘천)

阿片密賣檢擧

전남담양창평(全南潭陽昌平)에는「모르히네」환자가느러가는동시에 밀매자가 만타는데 창평리(□□半里)정경업(鄭京業)은 밀매자로판명되며 즉시경관의손에 붓들리여 취조를 밧는중 쑥다리(□□)김창식의 부처를 데려하여 엄중히취조한후 전부검사국으로넘기엇다더라(창평)

片康烈의獄中詩

방금 신의주형무소(新義州刑務所)에서복역하는 의성단장(義成團長)편강렬(片康烈)은 최근에 병으로 고생을한다는데 얼마전에 그는다음과가튼 시를 지엇다더라 (신의주)

蒼蒼한鴨綠江水는밤낫으로 흘너가는곳어데이뇨
悠悠한나의心思 너를따라거지업다
巍巍한錦繡峯아! 屹立千丈굽히서가 깁흔담장안너그리워 탄식하는너의녯主人 나를 네 보느냐
蒼空에밝아잇는저明月 아ー누구를위하야서! 皎皎히벗치엿는蹤迹에 깁흔恨은
□國魂이늣기워라 언제나언제나 붉은단□흘손옷 벗서나 사랑하는너를길걸소냐?

◇漢詩◇
松收萬木餘春立 溪合千峯散雨鳴
山住土壤□心蛇 江合細流水勢長

咸南線開通

두군데가동해

조선텰도주식회사의 함남선(咸南線)의 오로、상통간(五老、上通間)의 팔마일이무와 풍상、서신흥간(豊上、西新興間)의 구마일사분의 텰도공사는 전부준공되여 십월일일부터 영업을개시한다더라

女子強盜

창평에나타나 犯人은自首

전남담양군창평면해곡리현긔섭(全南潭陽郡昌平面梅谷里玄基燮)의처김다례(金多禮)(三五)는 지난십일일밤 열두시경에 동리마성녀(馬姓女)의집에침입하야 걸고자는 방문을 흔들며문을열라고 고함을침으로 그방에서자든 마성녀의 친정어머니 박씨(朴氏)와마성녀의아들(七)과 그동리김광삼(金光三)세명이놀내여 밤중에 엇던사람이문을열라하느냐하엿든바 나는부란당(强盜)이니 너의집에잇는돈을내라고 생명이중하나 금전이중하나 만일돈을내지안으면 너이들이생명을보존치못하리라하며위협함으로 그안에잇든 사람들이방에불을켜노코 야단을치는 동안에 그녀자는밧그로나가며 하는말이 조곰이라도 내노아야지안내노으면 큰일이나리라하고 가버렷다는데 그녀자는 마성녀의오라비가 다년간 일본에잇다가최근에결혼(結婚)하려고귀국하면서돈오십여원을휴대하고집으로돌아온것을알고그와가치강탈을하려고한것인바녀자는그후에즉시소관창평주재소(昌平駐在所)에가서자긔범죄를빌일히자백하엿다더라(창평)

馬車에轢傷

재작일이십사일오후세시 오분경에 시내련지동(蓮池洞)이백칠십번디한대영(韓大永)(四〇)과종로(鍾路)오뎡목사십사번디 윤건복(尹健福)(一〇)의두명은시내종로오뎡목되백이십사번디 길가에서 무엇에놀내여 다라나는마차에 치여한대영은머리가 쌔여저 삼주일도안치료의 부상을당하고 윤건복도머리에 삼일동안 치료를밧을부상을당하고 목하총독부 의원에서치료를 밧는중이라는데 그마차는고양군 뚝도면뚝도리(高陽郡纛島面纛島里) 일백사번디 차점출(車点出)(三)의마차로 전긔장소를 지날때에 마차압박휘에말발굽히 채여놀내여뛰여 다라나는바람에 그와가치 부상을당한것이라는데 피해자의 치료비는 마차부가부담 하기로되엿다더라

라듸오放送

日曜日(廿六日)下午七時부터 朝鮮音樂放送푸로그람

一、日本노래
一、淡海節
一、磯節
一、安來節　朝鮮券番　張小紅
一、童話　「나븨와가락지」　高漢承
一、童謠獨唱　귀뚜람이 「두루미」 韓晶東謠 尹克榮作曲　鄭順哲

◇휴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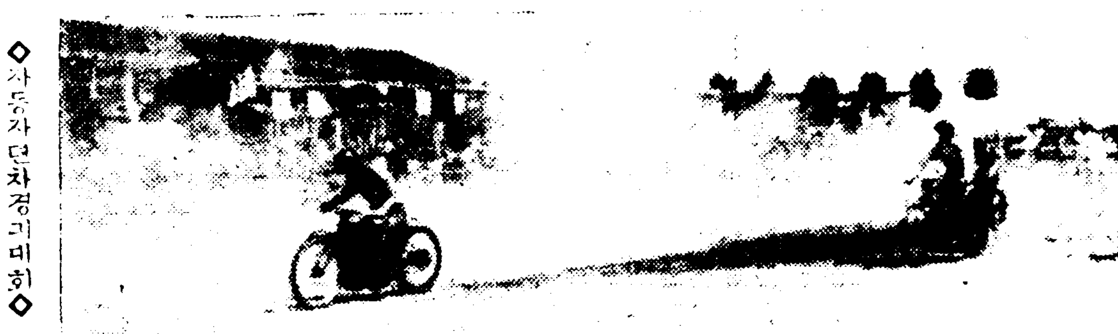
▲일본 복도현신석현면긔(福島縣新潟縣忠氣)발뎐소「돈네루」가문허저서▲지난십오일 공부십일명이 생속에뭇친일이잇섯는데 원악큰 굴이되여 그들을얼른 구해내고저죽을힘을 다하야흙을 파내엿것다 ▲아모리 파내여도공부 열한사람의 형뎨는볼수가 업슴으로발뎐소인부들은 더욱더욱 악을쓰고흙과변결과 이십이일 밤중에야눈이 말똥말똥하여 가지고 전부살아잇는 그들을 발견하엿다고 ▲그러니이들이 굴속에뭇치어이기를 만팔일간! 시간으로는 일백오십아홉시간 동안이나된다죽어서디옥(地獄)으로가기도설다하거든생전에디옥순례는좀참혹한일이야!

◇東京下關急行列車顚覆續報◇
(上)시데의발굴동급복구공사 (下)복몰이전의참담한현장광경

安岳明倫講師 四名全部豫審

◇죄명은보안법위반으로 【因山當時에突發한某事件】

무보‖지난六월이십일일경에 조흠밧은다하야 긔보한바어니와 황해도 안악명륜강습소강사(安岳明倫講習所講師)사건으로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으로재령지텽(載寧支廳)에 윤강사이던전무길(全武吉)윤부순(尹富淳)뎡만순(鄭晩淳)김정행(金貞行)의네명이 톄포되야 취조를밧고 이 사건에 자세한내용은 알수업스나 예심판사(豫審判事)의손에서 취조를밧고이다더라(재령)



◇자동자뎐차경긔대회◇

京城府徽章

◇경성부령의 현재「마ー크」(徽章)는「京」자의주위에성벽의모양을 배치한것으로 발뎐하여가는 경성부의 현상에벗처서그의의가숨견아니라이것을미술뎍으로관찰한다하여도종부족한뎜이업지안타하야 작년십일월에이개뎡할도안을일반에게현상공모하엿든바응모된중에서일등당선된「마ー크」의설명은이러하다

一、경성부의「京」자를그림으로표시한것
二、상부의「山」은북한산(北漢山)이요 하부의「川」는남산이며중앙의적은원(圓)은경성시가를 의미한것인데 장래에는남산을 관악산(冠岳山)이나남한산(南漢山)으로하면그만이다
三、현재사용하는「마ー크」는 사방이막혀서외부로발뎐할여디가업게 되여잇스나 이「마ー크」는성벽을 업새버리고 동(淸涼里往十里)서(二村洞龍山麻浦)등에 발뎐할여디가 만흠을 의미한것
四、이「마ー크」의형상은가장 수명이긴거북의형상과갓틈으로경성의장래는무궁하고행복이 만흠을 의미한것
五、이「마ー크」의 형상이 성(城)형상과구조와비슷함으로 경성의성(城)자의의미를표시 한것
六、「마ー크」의형상이 방사상(放射狀)으로되엿슴으로현대의리상뎍도시구조를표시한것

於義公普運動會

今二十六日午前九時부터市內於義洞公立普通學校에서는同校校庭에서秋季運動會를開催할터이라는데여러가지趣味잇는競技가만흘터이라더라

早慶對抗陸競

八對十九=早大大勝 走高跳一米八六新記錄

去二十日東京神宮競技場에서早大對慶大의對抗陸上競技가午後一時부터開始되여白熱的競爭이잇섯는바二十七對十九의成績으로早稻田이大勝이고同六時에閉會되엿는데早大의織田選手는走高跳에一米八六을跳하야日本의公認新記錄을作하엿스며八百米리레에慶應軍은早大側의反側이잇섯다는것을主張하엿스나審判은慶應側에도反則이잇섯든것을發見하고다시리레스를命하엿스나慶應은그에服從치아니하고棄權하엿다더라(東京電報)

布哇對大每野球戰

四對二=大每再勝

布哇對大每軍의第二回野球戰은二十四日大阪甲子園에서開戰되엿섯는데布哇軍은四對二로敗하고大每軍이再勝하엿다더라(大阪電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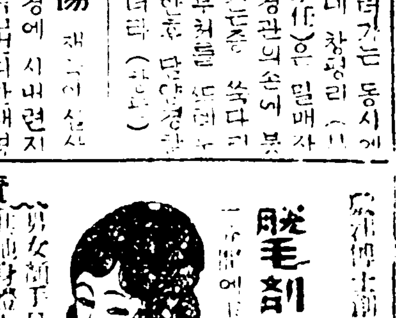
聯盟選拔팀 慶熙俱樂部 對抗野球試合

◇今月廿七日午後四時 第一回戰
◇同二十九日午後四時 第二回戰
◇於京城運動場=觀覽料金 特別五十錢 普通三十錢 學生二十錢
朝鮮體育會主催 本社後援

消瘡紫金丹 各種梅毒
九轉靈砂 製造藥房
京城府
主 李鍋廷

潤光商會 主任 金仁植
金銀美術 京城鍾路

近日浮浪者等이突然히本人이金錢을借用한다憑稱하고本人의所有土地日錄을謄寫하야金錢借用을紹介한다는風說이有하니內外國人은切勿見欺함을望함
昌寧郡靈山面校里 辛廷植 白



堅固 優美
六合商會
고려표고무

기 름
기름은무슨기름이든지구비합니다 시내에는電話만하시면一瓶이라도配達하여드림이다
興信製油所

◇廣告도記事◇

버섯! 버섯!

먹으면 손발이 춤추는 버섯 눈에 들면 소경이 되는 버섯 가지각색의 버섯

어린이

(순이) 옵바 내일은 버섯 따러 가요
(옵) 글세 비가 아니 올는지
(순) 에그 비가 왜 와요 가을에 도 비가 와요
(옵) 그러나 네가 버섯을 잘 따겟니
(순) 그럼요 솔남게 난 것만 따지요 다른 것은 먹으면 죽는대요
(옵) 식물학자의 보사에 의지하면 세계에 버섯의 종류가 사백몃십종인데 그중에서 먹어도 조흔 것은 오직 사분일 밧게 아니되요 그 외의 전부는 독이 잇는 버섯이라 한다 과학자들에게는 몰른 먹을 수 잇는 버섯보다는 독이 잇서 먹을 수 업는 버섯이 연구꺼리가 될 것이다
(순) 먹는 버섯과 못먹는 버섯은 빗만 보고나는 다 알어요
(옵) 그럿치 안타 빗갈은 먹는 버섯과 똑갓고도 먹으면 탈나는 것이 만타 가령 「수면버섯」이란 것이 잇스니 그것은 느진 가을에 삽팁에 수련바퀴 모양으로 생겨나는 버섯이다 모양은 얼른 보면 솔나무버섯과 근사하나 그것을 잘못 먹으면 큰일이다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재려도 해 오다 그뿐 아니라 「춤추는 버섯」이란 것도 잇스니 그것을 먹으면 저절로 춤이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 춤 추게지 추는지는 몰라도 퍽 흥분은 되는 모양이다

◇

(순) 하하 버섯을 먹고 춤을 추어요? 그것 재미잇네 이 담에 그것을 따다가 내 동무들을 다 먹여주어야지
(옵) 그보다도 더 무서운 버섯은 소경되는 버섯과 벌레먹는 버섯이다 소경버섯은 이도 에 잇는데 옷똑경이 빨간 양산 갓고 조곰만 다치면 떠러지는 연한 것인데 떠러질 때는 빨간 모자(帽子)가 먼지 넘도록 보야케 날어난다 그것이 눈에 드러가면 즉시에 소경이 된다는 무서운 버섯이다
벌레먹는 버섯은 「파리삼이」라고 하는데 것초로 달콤한 진이 흘러 눈고로 벌레가 와서 먹으려 하면 독한 즙이 나와 벌레 몸을 녹여 버리는 것이다 버섯의 나히는 길다 야메 칠몃가지 마다 그중에도 「여호버섯」이란 것은 아츰에 돗기 시작하야 점심에는 세치 가량이나 크고 오후 두시에는 밋둥이 부러져서 죽고 만다 이 버섯도 즘생이 먹으면 곳 죽는 고로 여호들이 무서워 피해 단닌다고 한다 그래 「여호버섯」 이런 것인데 참말인지는 모두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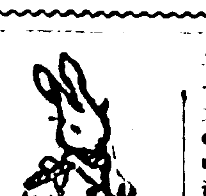
◇

(순) 버섯니 예기는 그만입니까 그럼 다음에는 무슨 니야기를 해주서요?
(옵) 무엇이 먼지 네가 가지고 오는 물건에 대해 니야기 해주마

露國童話 제비 — 고긴빗

어엽부고 어엽븐 노래하는
그리웁고 그리웟든 제비는
빠르게도 멀고먼 나라에서
아무일 업시 도라왓습니다。
초마못헤 와서 춤을 추면서
자라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귀는 싼뜻한 봄과 볏을
선물로 가지고 왓습니다」

동화 천하장사 명도령 (五)



金泰午 作

청도령과 그동생들은 그동안 마음편하게 삼만자다가 거이오 징용되여서 그배에야 알어채인드시 벽녀가치 일을 착수하여 그 무쇠가 큰 밀둑을 한번식 휘둘느매 당장에 그만흔 나무들이 욱고다 버이게 되여 그만 시원섭섭하게 의이여 버렷습니다

이번에 도진 그삼형데는 또다시 한번만 마즈만 삼시셋팜으로 하자구 또 칭햇습니다 마음이 인자하고 너그러운 청도령은 덜게 승락을 하엿습니다 그놈은 아들의 대원맛형이 말하기를

「이번 한번만 쏙내기를 합시다 그런데 그것은 이산에 버힌 나무를 우리는 모조리 이곳으로 가져 옵니다 당신네들은 한데 모아 장이시지오」 하고 말햇습니다 청도령은 또다시 승락을 하고 시작을 하엿습니다

그리하여 그삼형데는 이번은 대머리관이라 과연 자긔들의 젓먹든 힘을 다하여 비호처럼 날닙게 일을 시작합니다

청도령과 그부하들도 몸시도 싸른 속력으로 나무를 쏫기 시작하여 어느새 태산과 가치 싸아올나 갓습니다 그런데 그삼형데는 한쩨를 내엿습니다 그것은 청도령의 사형데가 다 ─ 산가치 쏘아논 그나무우에 올나잇서 눈코 돌사이 업시 장이는 판에 그삼형데는 미데서 그나무에 기름을 만히 붓고 불을 질넛습니다 그야말로 오작이나 잘 타겟습니가 그야말로 몸시도 빠른 속력으로 불쏫이 날리기 시작하매 청도령의 사형데는 쏨싹못하고 감나누가지 그불가운데 상사를 하게 되엿습니다 그러나 놀나지 마시오 그 인자하고 마음착한 천하장사 청도령은 정성것 하날을 향해 축수를 한 후에 대입처음으로 곳 래ㅅ쇠를 불너 저긔 흘너가는 온 ─ 강물을 돌너쓰라구 햇습니다 대데 고래ㅅ쇠는 곳 그말슴대로 순종을 하고 강물을 숙 ─ 들너마셧다가 푹 ─ 내뿜은즉 아니라 그곳은 곳 큰 각이 별안간 되여 버렷습니다 그다음에는 배ㅅ쇠를 불러 배를 치하엿습니다 그리하아 그사형네는 아무 탈업시 그배를 다고 동실동실 로를 저으며 가는데 악가 그불을 노앗든 삼형네는 사람살리라는 소리에 온 ─ 산천이 움직이며 그소리는 몸시도 처량하고 구슬흔 소리엿습니다 청도령은 다시 불상히 녁이고 그배를 속히 도리켜 그삼형메를 구원하여 곳 동생들을 삼엇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일곱형데가 되엿습니다 이 일곱형데는 참으로 그후부터 무엇이든지 하사 이길만콤 되엿습니다

四

이 일곱형데는 다음과 뜻을 가치하여 덩실덩실 배를 타고 락동강을 건느고 험한산을 넘어 남해안(南海岸)을 것처 나라의 역적이 만코 심술이 몹시 도사나운 장수가 만다는 대마도(對馬島)를 향하여 갓습니다 그후얼마 아니되여 목뎌디인 대마도에 이르럿습니다

그큰섬나라에는 역적과 해적(海賊)과 또 그외에도 심술사나운 장수가 만히 살고잇섯습니다 청도령의 일곱형데가 그섬에 내리자마사 그중에도 괴수가 생그런얼굴로

「에 ─ 이방자스러운 놈들아 이몸이 누허락을 맛고 함부로 드러오나? 너희 목숨이 경각에 달렷스니 당장에 항복하고 나가거라」 하고 호령호령을 하엿습니다

청도령과 그부하들은 그만 크게 놀내엿습니다 그것은 그전에는 도모지 이러케도 무서웁고 날내게 생긴 장수는 난생처음으로 본 것이엿습니다 또 괴수는 말하기를 ──

「이 괘ㅅ심하고도 건방진 놈들……」

하고 키의 군졸들을 매복시켜 청도령을 죽여 버리려고 햇습니다 그런데 그소리를 듯고잇든 정자나무쇠가 대담하게도 불쑥 나오더니 「이 요망한 놈들아 ─ 자서히 들어라 우리의 님금님과 만흔 군사의 원수를 갑기 위하야 우리 고려(高麗)의 대용사(勇士) 청도령이 왓스니 빨니 나와 항복을 하여라」 하고 외치면서 그 못된 역적들 잇는 곳까지 밧삭 달겨들엇습니다

무섭고 무서운 호렬자

◇호렬자는 무엇 때문에 생기나 ── 온전히 호렬자 미균 때문에 생깁니다
◇어떠케 하면 호렬자에 아니 걸릴까 ── 미균이 몸에 드러가지 안토록 하야 됩니다
◇미균이 몸에 드러가지 안으려면 ── 랭수와 날것을 함부로 먹지 말고 무슨 음식이던지 끌여 먹을 것이외다
◇집안에는 파리가 업도록 다 잡아 죽이고 파리가 안젓든 음식은 먹지 말 것이외다 거리에서 파는 과자와 어름과 실과와 채소는 위험천만이외다

◇天眞의 世界 (彫刻) 게에스만 作

어린이 작품

○소낙비 馬山公普 金萬石(一五)

소락비란 놈은
장난군이 애요
까치가 지은 집
다 문어터리고
그래도 조타고
퍼붓는 놈애요
소낙비란 놈은
무정한 놈이 애요
장대기치 퍼부어
우리집 나락을
못쓰게 하는
소낙비랍니다

○아침이슬 陜城郡下方面 吳鳳鉉(一五)

아침해가 불근 솟아
안개어둠 사라치니
풀입마다 매친이슬
방울방울 떠러지고
내가 심은 백일홍은
이슬먹어 조와라고
솔솔부는 바람따라
설렁설렁 춤을추요

○우리집 元山府第一普校六年 白春子

불러가자 동무들아
우리집에 놀러가사
압뜰에는 입분국화
뒷뜰에는 커스머스
방긋방긋 웃스면서
우리들을 맛는단다

○내고향 송회소년회 리명준

나는 내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집뒤엔 솜혼산
금빗해가 소사오르고
압헤는 너른 호수에
은빗달이 빗최이는
그고향이 자나깨나
늘 그리워요

○밤나무 恩平學校二年 金立?(一三)

나사는 동네에는 안윽하고도 적은 산잇헤 쌔쏫하고도 정한 초가집학교가 잇습니다 그학교는 내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우리학교 집뒤에는 밤나무가 만히 잇습니다 그밤나무는 여름이 도라오면 밤쏫이 만발해서 우리학교 교실안으로 맑은 쏫향긔가 대단히 진동하여 드립니다 쏫이 떠러지면 밤이 매처서 나무에 밤송이가 송이송이 달려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요사히는 밤송이가 가커서 만히 떠러젓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서 밤알이 든줄 알고 떠러진 것을 쌔보니깐 알맹이는 죽으마케 드러잇슬 뿐입니다

○가을 龍山 李慶福(一四)

우리집 호원에
왜버들나무
가지만 파아당스런
왜버들나무
칭칭하고 싱싱하든
무른닙들은
쓸쓸한 가을바람에
너울너울 춤주드니
어언간 누른닙 지며
하나둘식 락엽되네
이것이 가을인가

◇龍川楊市公普六年 金貞一

어린이소식

아버지대회 어머니대회

시내 태부동(?府洞)에 잇는 경성소년지도자련맹오월회(京城少年指導者聯盟五月會)에서는 오날(二十六日) 오후 한시부터 아버지와 형님을 상대로 아버지대회를 열고 밤일곱시부터는 어머니와 누님을 상대로 어머니대회를 연다는데 장소는 시내 태평동(來靑閣)이라 하며 여러가지 유악과 춤과 가극이 만히 잇슬 터이며 여흥으로 재미잇는 제비뽑기 상드리기도 잇슬 터이라는데 입장은 무료라 합니다

추긔운동개최 안악주일학교

황해도 안악(安岳) 예수교 남로회례배당 유년주일학교에서는 지난 십구일 하오세시 반경에 동례배당안에서 선생회를 소집하고 주일학교 처리방책과 여러가지 사항과 임원개선 등이 잇고 추긔운동회 개최에 대한 의면 등이 잇섯답니다 (안악)

決議案
一、압날에 잘살기 위하야 어린이를 힘써 위하고 잘 귀위줍시다
二、어린이에게 돈을 앞니지 말고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야 줍시다
三、어린이를 업수히 녀기지 말고 조혼책을 읽히고 유익한 이야기를 하야 줍시다

東亞詩壇

호을로 온 이몸 谷山 宋世根

멀니잇는 님을두고
夜夜한 산골에
혼을노 드러와
나는 홀로 노서외노라
날이 새부는 심우에
西山에 걸닌
저녁볏이 붉게 나의 등을 치고
야燃氣이 는것은 나를 안터라 집도
업는 사람과도 가치
나는 머나먼 곳을 호올노 와서
님과 함께 잇는 듯한 즐겁은 맘 보로
나는 自然과 함께 잇스라노라

그러치안키론 成鏡 眞?

당신의 가슴은 바다도 아니언만
귀귀우리면 ?는 물결소리 가득임니다
그러치안키론 당신의 마음을
내가 모르오리가
나를 한입에 삼켯스면 조하알
당신의 마음인데요
◇
나의 가슴은 火山도 아니언만
언제나 불붓고 잇습니다
그러치안키론 내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치 안으리가마는
心臟이 싸진 地球우에서
冷却을 두려워함이오

첫날 浪人

牧師님은 聖經冊을 들처며
「이 두사람이……」 할때
아직도 處女인 新婦는
「……이 時間이 길어지이다」
하고
가만히 속으로 부르지젓습니다
그러나 新郎은
「얘기이 놈의 時間이」 하고
짜증을 내엿습니다

新刊紹介

▲二十世紀萬倒論(宋元楨著) 食虫의 世界, 牧師의 人間, 等外에 三十六種 定價金五拾錢 振替京城六二三一番 京城府鍾路二丁目八十四番地 永昌書館
▲性病의 智識(千葉醫學士 盧岡李著) 性病에 對한 智識이 滿載 定價金三十五錢 平壤府西門通 基督書院

어린이작품모집

◇노래(동요나 자유시나) 이십줄안으로
◇작문(순국문으로) 삼백자안으로
◇그림(연필 색연필화) 봉을 보지안코 그린것
一、매주 일목요일과 월요일마다 「어린이란」에 내겟습니다
一、「어린이란」이라 봉투와 원고 두곳에 분명히 쓰시고 나히를 쓰시고 학교와 학년을 쓰십시오

▼萬人必備의 寶典! 證文과 契約의 書法 中央法政學會編 最新刊

◎本書一冊만 잇스면 아모리 어려운 證文과 契約書일지라도 남에게 속지 안토록 正當하게 되오리니 金錢의 貸借、物件의 貸借、賣買、讓渡 其他 種種의 證文과 契約書의 書法이 잘못되면 意外의 損害를 입거나 回收치 못할 失敗를 當하는 일이 만소 ◆本書는 中央法政學會에서 苦心硏究한 結果 完成한 寶典 ◆金錢의 貸借 ◆動産不動産의 賃貸借 ◆土地建物의 貸借及賣買 ◆物品의 賣買와 貸借 ◆土地小作契約 ◆營業上에 關한 諸契約 ◆其他 日常百般 모든 證文과 契約書의 書法을 一一히 其書式과 書例를 示하야 누구든지 알기쉽도록 丁寧親切히 說明하엿는 故로 ◆本書一冊만 잇스면 過多한 費用을 드려서 專門家에게 依賴치 아니할지라도 틀림업는 證文과 契約書를 自由로 쓸수가 잇고 또 附錄으로 (新届 申請 書式大全)을 添付하야 戶籍、民事、兵事、土地建物 所와 모든 官公署에 提出하는 書式을 數百種에 亘하야 一一히 說明付로 仔細히 揭載한 故로 代書人에게 依賴할 必要도 업시 모든 願届와 申請書를 누구든지 自由自在로 쓸 수 잇는 萬人必備의 大寶典이다
▲四六判 最新形 金字入美本 定價二圓
▲發賣記念으로 新聞名記入注文者에 限 特價金一圓五十錢
●郵送料不要(代金引換은 廿五錢增) 東京市 ... 振替東京二七二二七番 中央書院

威和胃腸藥

놀날만치 消化力이 强하다
가ー본의 應用으로
胃腸의 掃除 싸지된다
價 廿錢 卅錢 五拾錢 壹圓
大阪堂島·東京神田 高橋盛大堂藥局
●朝鮮各地藥店에 有함

구라부齒磨

齒牙에 第一조흔
구라부齒刷子 (クラブ)

第一進步한 美容의 비누는
ベルベット石鹸 (베루벳도비누)
ハープ洗濯石鹸 (하프)

木綿物의 洗濯은 쉽고도 速하게
ベルベット石鹸株式會社

健腦는 成功을 生함
成功하는 사람, 頭腦조흔 사람。

明治博士證明 健腦丸 KENNŌGWAN 腦病良藥

適應症狀
머리가 누르는 것 가치 무거운 사람
頭痛眩暈가 나고 밤에 잠 못자는 사람
逆上症으로 氣分이 나부고 便秘하는 사람
글을 읽어도 意味를 모르는 사람
記憶力이 薄하고 決斷力이 업는 사람
赤病을 보는데도 倦怠하는 사람
些少한 일에도 神經過敏하기 쉬운 사람
무엇을 보든지 모든 것을 悲觀하는 사람

特長 常用하면 大小便이 順便해지고 中風卒中을 豫防하는 偉効가 잇다。
▲價額 十週分六十錢부터 十週分七圓까지
本舖 丹平商會藥房
全國各藥店에 有함

九月二十三日(木曜)부터 秋期映畵戰線에 二大巨篇 一齊射擊
◎明侍와 熱望에 싸인 問題의 快巨篇 海의 野獸 全十卷
◎冒險兒 全七卷
◎아버지代身
特別大豫告
朝鮮劇場

白頭山寫眞畫報

【其六】 林間의 小憩

밤에는겨울과가튼白頭山中도낫에는赤白이쇠를녹이려하야한참만큼식休息하지아니하면흘으는땀을주체치못한다。

六十七個所 警察署新築

總工費百二十四萬圓

警務局에서는來年度豫算으로全朝鮮警察署中新營을必要로하는警察署를調査하야總額百二十四萬圓을計上하고財務局에要求하엿다는바査定의結果는要求한內容은左와如하다더라

「全朝鮮」의警察署는二百五十一警察署駐在所二千一個所派出所가百六十二個所가有하고此外에地方의土木工事等으로特히多數의人夫가集散하는時에는臨時駐在所를增設하게되여이것이現在百五十五個所가잇는바警察署와派出所는在所가모도다建築하지만은駐在所는借家에잇는것이多數하다는바今回豫算에新營經費를計上한警察署의數는六十七個所、工費總額百二十餘萬圓一個所平均約一萬七千圓程度로外此等은二十七年前의建物이고忠南大安署는二百年以上經過한다하며 新營費는一署에一萬七千圓의平均인데平壤大邱의兩署는京城本町署에다음가는建築을함으로十萬圓內外를計上하엿다는데新營警察署는左와如하다더라

▲京畿(六署) 漣川、抱川、利川、水原、坡州、開城 ▲忠北(二署) 沃川、報恩 ▲忠南(二署) 溫陽、天安 ▲全北(二署) 長水、裡里 ▲全南(四署) 光州、求禮、高興、和順 ▲慶北(九署) 大邱、永川、英陽、義城、醴泉、奉化、聞慶 ▲慶南(二署) 晉州、泗川 ▲黃海(六署) 殷栗、新溪、長淵、松禾、長連、安岳 ▲平南(五署) 平壤、鎭南浦、順川、江西、成川 ▲平北(八署) 龜城、泰川、碧潼、鐵山、龍岩浦、昌城、朔州、江界 ▲江原(六署) 鐵原、春川、楊口、淮陽、麟蹄、高城 ▲咸南(七署) 咸興、元山、利原、端川、長津、安邊、北靑 ▲咸北(五署) 會寧、淸津、茂山、吉州、城津 計六十七警察署

夜學의奬勵次 講演과音樂會

◇長城靑年會에서 全南長城郡北二面淸陽靑年會에서는一般無産兒童을爲하야勞働夜學을經營하여오든바秋夕佳節을期하야勞働夜學에對한有益한講演及音樂會를開催하기로되엿고 去九日午後八時에講演及音樂會를開催하엿다는데同夜學生에게奬學賞品授與式도잇섯는데觀衆은無慮數百名에달하엿다더라(長城)

巡回活動寫眞

培成學院維持策

咸南咸陽郡西下面私立培成學院은元來不完全한經濟的基礎가업서오든바此에同院關係有志諸氏는其維持策으로巡回活動寫眞隊를組織하기로하엿다더라

巡廻探訪 (八十七)

前日은觀察府 道內를管轄

原州地方昨今 (2)

原州 一記者

社會團體

原州靑年會는 一般運動의趨勢에依하야一時改革하야 智識을普及하며風紀를肅淸하는中特히大正十一年度의大水災時에는會員一同이無料로救濟事業에從事하야一般의稱頌이藉藉하엿스며 會館으로는舊普通學校의建物을買收하야修理中이라하며 北原同盟은警察의干涉으로 活動을못하고잇는中이며 其外原州우리의俱樂部、勞働夜學同友會等이잇스며 原州體育會는少年體育會에이어 心身을鍛鍊식히며 動作을機敏케하며 忍耐久식히며 規律節制를共守하야團體心을向上식히며社會的訓練과禮儀를봉取케하기로目的하고 昨年六月에組織되엿스며 會員은二十餘名이라더라

教育界

十年前에原州普通學校가잇슬뿐이엇다 外지後로아즉民間經營의學校는생겨나지안코 原州、文幕、神林、興湖의四個公立普通學校와二個所의普通書堂과五個所의改良書堂이有하야二千三百餘의男女學生을敎養하고잇는中이다

◇勞働夜學會 는其數가百五十一個所나되며就學兒童이一,七六〇名에達하며幼稚園은貞信、弦光의二個所로邑內耶蘇敎會에서設立한것인데 每日男女五十餘의兒童이來聞하는中이다

名勝古蹟

上院寺 이寺는雉岳山의最上峯에在하니距今一千有餘年前無着禪師가建立한寺刹로樓閣이宏壯하야雉岳山의秀峯이擁包한景槪의絶妙함은形言할수업서新羅時代의名禪師의師文殊大聖이日法界諸衆生이一見本寺이면即化石佛하리라稱하얏다보아도絶勝地임을推知할것이다 又寺의左右에三魚石、獅子石、二龜石、降龍鉢、甘露井等妙物이有하고또庵前石上에는血痕이有하니此를稱하야鷄馬跡이라云한다 山頂에立하면六州를俯瞰할수잇스며三百里外의京城東大門外지보인다는別世界라한다

船龍寺는雉岳山北麓에在하니 寺前에九龍淵이有하니楓岳山의모든골에溪流가한줄기小長川이되여石에도激하고崖에도衝하면서屈曲奔放하야淵이되니깁히는一丈이나되며水色淸澈하야닥에白沙가나려다보이며 淵水가漲滔되여四口로直下하야岩에부더치는飛沫은珠玉인가疑心되며

◇毗盧峰 雉岳山中峯에소속하야 峯上에는鐵馬가有하야往昔仙人의來遊場이라云하며 其下에는澗水가有함으로盛夏에壯年者結社作伍하야此山絶頂外지登陟하는者가多하다

興湖里에서南一里處에居頓寺法泉寺의舊址에巨碑가有하니 前者는朗空國師가建立한者인데勝妙塔碑라稱하야其高가十二尺餘(碑身高八尺廣四尺)이며 後者는智光禪師가建立한것으로玄妙碑라稱하야高十五尺(碑身高八尺長五尺 龜趺高五尺長十一尺餘)이니共히九百年前遺物로써其名이世上에날리엿다

◇王碑閣 邑中洞江陵街道石側에在하니 李朝十二代仁祖大王의配偶仁烈王后께서誕生하신奮址로서 瓦葺朱屋의中央에石碑가有하니 百六七十年을經過하엿다한다

孝子와猛虎 原州邑內에서五十里相距되는建登面硏溪里에잇스니昔時黃戌辰이라名하는孝子가有하야貧寒한家庭의生長이나自幼時로聰明多藝하야登第의勞를不倦하야當時原州觀察府員으로採用되엿다한다

◇觀風閣 原州의江原道觀察府舊衙(現郡廳)裡庭에一蓮池가有하고其中天에騷容의雅趣할만한一樓閣이잇스니稱曰觀風閣이다 春季면池畔의夭夭한桃李花는그姸姸한丹粧을池水에빗취여美觀을呈하며、周圍의芬芳한卉의美麗한風景等은人의心思를기울려보지안을수업스며 夏季면周圍의欅其他雜木의가지를흔들어吹來하는南香風과同伴하면暑氣를忘却할餘念이업는涼風樓라고도하겟다 終日觀察使의安息所이엿다 然而此處의一聯學이라할것은附近土塀을越하면곳田圃임으로無數한蛙群이喧噪하야一層興味를도읍는다

◇寫眞說明◇ 觀風閣의勝景

金堤勞農同盟 八個部新設

金堤勞農同盟에서는지난二十四日午後一時十分부터金堤靑年會館에서臨時總會를열고同盟員七十餘名이出席하고金琦煥氏의開會辭가잇슨後臨時議長으로李秉吉氏를選擧하고左記綱領과規約을通過한後任員을選定하고討議事項은執行委員會에一任하기로하고同三時十五分에萬世三唱으로閉會하엿다더라(金堤)

◇綱領 我等은互相扶助의原理下에서生存權確立을期함

◇規約(略)

◇討議事項(略)

◇執行委員 總務部外七部李泰吉外十六人

仁川野球大會 二十六日에

仁川體育會에서는全仁川秋期野球大會를二十六日午前九時부터山根町公設運動場에서開催한다는데當日出場「팀」及對抗順은아래와갓다더라(仁川)

全仁部──內國通運

機關區──高麗

海州慈善音樂

海州救世軍育兒道地方營에서는當地無依의兒童을救護하기爲하야海州育兒院을設立할目的으로本月二十五日午後八時부터本地方營內에서慈善音樂會를開한다는데京城에잇는救世軍育兒院樂隊가出演하게되며一般人士中에서도多數의出演準備를한다는바當日은매우盛況을呈하리라는데一般人士의多數來聽하기를希望한다더라(海州)

國境牛疫豫防

明年三月까지約二萬頭注射

國境牛疫豫防地帶構成에關한協議會를지난二十二、三兩日間總督府에서開催하엿다는데同會에서協定한主要事項은平北成鏡南北所謂國境地帶와間島在住朝鮮人所有生牛에對한豫防注射液『와론』의配給量과此의實施方法이라는데協議의結果本年十月부터明年三月까지에平北一萬六百二十八頭咸南三千四百六十七頭咸北五千二百十一頭計一萬九千三百六頭의生牛에豫防注射를施行하고同時에間島朝鮮人所有生牛中約二千頭의注射液即六萬瓦를間島에送附하기로되엿스며國境三道所在生牛中平北一千七百七十六頭咸南千百七十頭咸北一千五百八十二頭計四千五百二十八頭는沿江耕作又는營林所採木公司等의材木運搬에使用되는故로自然中國地方과往復이頻繁함으로十月부터注射를施行하야느저도十一月中에는全部를完了케한後前記一萬九千餘頭의남어지를漸次施行하고前記間島生牛에對하여도此와가튼方針으로十月부터實施하야本年에終了케할方針을定하고此의所要經費即主로施術醫의旅費手當等約一萬二千圓은第一豫備金에서支出하기로內定하엿다더라

電話開通陳情

竹山에서는京城仁川等地에通話가되지못함으로市民及官公署가一致協力하야關係當局에陳情書를提出코자準備中이라함은既報한바어니와지난二十一日附로遞信局長과京城郵便局長에게電話開通에對한官民有志二十餘名이捺印한陳情書를發送하엿다는데萬一如意치못할時는陳情委員을派遣하기로하엿다더라(竹山)

마라손大會

南陽公立普通學校後援會에서는當地振興會와本報南陽支局後援으로「마라손」大會를左記와如히開催한다더라(南陽)

日時 十月一日

場所 南陽公普校庭

定員 二十人

參加金 二十錢(一人)

申請 九月二十九日까지

授賞 一等에서八等外지

江景에便射

忠南江景에서는附近扶餘、論山二郡의人士를招待하야오는二十六日에當地澄淸遊亭에서便射戰을開催한다더라(江景)

羅南靑聯委員會

羅南面聯盟에서는去十七日午後六時부터同事務所에서第二回執行委員會를開하고左記事項을討議하고同十時散會하엿다더라(羅南)

一、負擔金에關한件

一、新聞支局經營에關한件

一、懇談會開催의件

英實校運動盛況

既報=哈爾賓在留同胞의唯一한敎育機關인英實普通學校에서는秋季運動會를豫定日인十四日로또延期하야同校運動場에서午前八時부터始作하야四十餘種의競技가잇섯는데內外男女觀衆이무려數百名에達하야盛況을이루엇다더라(哈爾賓)

全北農友會

全北道農會에서는去廿日午前十一時부터裡里東拓支店樓上에서總會를開催하고道로부터渡邊知事以下六名이臨席하고會員二十八名이出席하야産業增殖에伴한低利資金融通外數項을討議하엿다더라(裡里)

講演과正文講座

江華中央靑年會에서는京城에잇는朝鮮文會長李弼秀氏를聘하야지난二十一日午後八時에當地敎會禮拜堂에서講演을하엿는데大盛況을이루엇다하며同二十二日부터三日間每日午後八時부터十時外지二時間式正文講座를開하엿다는바好成績을得하엿다더라(江華)

金泉小島展覽會

慶北金泉小島會에서는小島展覽會를지난二十日부터開催하엿다더라(金泉)

訂正 本報九月二十一日付網探訪欄記事中産業界第二段은第二段으로第一段은第一段으로誤植되엿기玆에訂正함

地方論壇

農業總計를보고

沙里院 一記者

그리하야 餘暇잇는대로新聞雜誌를讀하여야할터이며『새어』를비고『신』을삼아신어야할것이다 우리는모든것이根據가업는이만큼남보다더욱힘써야할것이다 米밥을망쳐며줄수잇스며 衣食이넉넉할수가잇슬것이아닌가? 農民諸君이잘理解하는것가치 農業은天下之大本이란녯날聖哲의訓戒를 諸君은簡單히農業은耕作뿐인가? 果然그럿타고하면큰誤解를免치안을수업다 一般이共知하는바와가치 農家에서는 種子도씨리고養豚도하고畜牛도하고 養蜂、養蠶、養鷄等도하고 果樹栽培等其他모든業을 副業或은專業으로하야能히衣食을充足히하고 農産物로經濟의土臺를삼은後에라야살수잇는것을意味한것으로吾人은深覺하고잇다 그런意味에잇서서吾人은玆에實例를擧하야 『밥』을이루고『씨』를뿌리는것만農業이아닌것을말하는同時에前日의農業은너무도簡單하고消極的이엿다 이제吾人은우리의農業을一層擴張식혀여積極的으로하지안으면 남과가치生活할수업는今日에處하야 누가經營할줄不拘하고그收穫의高를郡別로擧하야農家와參考材料를삼게할뿐이다 道內에米果栽培로말하면 大正元年에收穫高가八萬五千八貫에不過하든것이昨年에는七十七萬四千二百八十四貫에達한바 此量更히郡別로나혀보면다음과갓흔收穫이다

海州郡	二六,〇九九貫
延白郡	四六,九四八
金川郡	八二,五〇五
平山郡	二九,二二九
新溪郡	一,四一六
瓮津郡	二,六二四
長淵郡	三,五六六
松禾郡	一六,五九五
殷栗郡	一七,九二八
安岳郡	五〇,四〇〇
信川郡	一二二,七二六
載寧郡	一二〇,〇一二
黃州郡	二八五,二八八
鳳山郡	三六,五四一
瑞興郡	三八,六二三
遂安郡	八二九
谷山郡	一,九五五貫

◇以上計가七七四,二八四貫인바紙面關係로不得已昨年統計만다음과가치擧하려한다 道內各郡에서收穫한製繭高는四十萬四千三十四貫、葡萄가一萬二千二百七十二貫으로果樹栽培도相當한收穫을보게되엿스나우리의經營으로는아즉도봇만한곳이적은것이事實이며 大部分의農家에서製造하는叺、莚을區別하야보면改良莚이十九萬六千九十六枚、在來莚이六千七百四十八枚、叺이三百二十六萬八百六十一貫、養蠶戶數는春蠶、夏蠶、秋蠶農家戶數가昨年外지에二十二萬一千三百八十二戶로繭産額이一萬二千四百十八石、牛가十二萬六千〇六十三頭、豚이九萬一千三百二十八頭、山羊이三十三頭、緬羊이六百六十二頭、鷄가六十四萬三千〇五〇頭인바 그中에養鷄로말하면瓮津郡에서經營하는것 이外에는모두가在來의式으로每戶에몃머리式을飼養할뿐이다 그러고養蜂으로말하면飼養戶數가三千八百七十戶에年産額이五萬七千七百六十七斤에價格이五萬七千五百七十七圓에達하는데 道內十七郡産業組合에서는十五年度豫算이十萬五千三百八十九圓이나되는巨額으로되도록은畜産에奬勵하는中이다 그러나一般農家에서는副業으로도아즉着手치안는곳이만흘뿐아니라그와갓흔것은너무하게生覺하야가지고차라리굶고먹을지언정養鷄、養豚等副業은着手할生覺도가지지안는것이事實이며 그남아經營하여보고자하는意志가잇는農家나或은經濟上인사람이不少하나그들은大資金이問題가되는不得已實行치못하는것이또한事實인것을吾人은잘알게된다

◇

그런故로筆者는이제一般農家와富豪諸氏에게마즈막으로一言을더말하지안을수업는事情이다 그는富豪만으로서도살수업는것이며農家만으로도살수업는彼此떠나지못할連帶責任이잇는關係이다 그런까닭에우리의生活을어느程度外지라도復活을식히자면餘力이잇는대로努力하여야하겟고富豪는그들의事業을어듸외지든지援助하여주어야된다 그리하야農民으로서는産物을外地로輸出은아즉못식히망정農民의주머니에서흘러나가는金錢을남에게빼앗기지안는限度에서는아니된다 그런뒤에農村의經濟부터復活을식히자(完)

鎭城三城金鑛의 分鑛業者陳情

鑛主處置苛酷이라고 (下)

【國境記者同盟調査發表】

一、鑛主及分鑛業者對鑛夫間問題

가、賃金問題 現在鑛主崔氏가直營하는火輪機에서使用하는鑛夫는約四五十名이잇는데毎日十二時間勞働(맛대거리)을식혀一日約六十五錢의賃金밧게주지아니하니그收入으로一家四五人食口의生活을安定하기어려울것은勿論一旦病魔에걸니면그身勢가不可形言이되는것은明若觀火한일이며 다음『덕대』가使用하는鑛穴에는鑛夫는八時間勞働(三번거리)에七十錢의日給이나이것은鑛夫自身을爲한다는것보다오히려『덕대』自身의利益이되는것 그理由는分鑛業期間이六個月의短期日임으로萬一鑛脈이나良好하면될수잇는대로急速히採掘할必要上鑛夫가十二時間勞働에從事하면自然그能率이不良함으로不得已八時間制를採用하게된것갓다한다

나、食糧雜貨問題 이問題는오늘날새삼스러히이러난問題는아니나어느鑛山에서든지『덕대』는購買組合으로唯一의收入으로치는것이니日給이六十五錢일지라도定日에現金으로支出하면市中에서自由로食糧이나被服類를廉價로買入할수잇스나그러치안코『덕대』가物品으로支出하기때문에鑛夫들은莫大한損害를보는것이다

다、公傷鑛夫問題 大槪어느鑛山이던지自己鑛山에서不意의公傷을受한鑛夫는經營鑛主의費用으로治療하는것이鑛山의公則이라할수잇는터인데鑛主의火輪機工場建築時에勞働者金昌珍이三四丈의高處에서落傷하야一時는氣絶狀態에이른일이잇서그곳郡山醫院에서崔氏에게五月九日부터六月一日外지約一個月間이나治療를밧더수快되엿는데그醫院에서十五圓의治療費를鑛主崔氏에게請求하엿스나崔氏는本人에게請求하라고拒絶한일이잇고 富川에잇는崔氏를訪問하고그情狀을말하엿더니그時는崔氏가무슨마음으로親切히病院에電話外지거러서治療하여주라고依託外지하고도今治後에治療費請求에는應치안어서方今問題中에잇는것

二、其他問題

가、三成義塾問題 三成義塾은大正十三年에崔氏가〇〇團의襲擊을當한後에公益事業에힘쓴다는口實下에서家屋(草家十餘間)一棟과運動場敷地를寄附하게되야開校케되엿스며 義塾의經費로三成義塾이創設되엿다고하고그利子로每月二十圓式을보낸다하나 그設備의不充分함은果然二百萬圓鑛主崔氏의經營이라고는암만하여도밋을수업스며 家屋은頹落되여漏雨의痕이敎室에滿滿하고寄附하엿다는運動場에는石을積하여不過二三十坪에지나지안는場所에서體操敎練을하는것은 學齡兒童은百八十餘名이요一年經費는千八十圓이라는데 그가장重要收入資源이라는土地는金志國이라는사람에게年三百圓으로崔氏가借入하야그우에市街를만들고그곳에집짓는사람에게借地料를받는것인데結局崔氏가그學校에는年百圓밧게支出치안는것이고 오히려金志國氏가六百六十餘圓을寄附하는심이된다 겨우五百圓의돈이업서敎室一棟과洋鐵板屋을못한다하며 今年五月에小北谷知事가그곳鑛區를視察할때에도生徒가四五里式이나되는途中에 미리부터生徒들을路中에기다리게하여나길이어느곳나서보지도못하고鑛山事務所에서午後에다아니하고 敎育에對하야는아니敎育에對하야는不平은不少하다

나、鑛主對鑛山問題 崔氏는鑛山周圍의不平을쉬지안는바이다

다、崔氏對社會態度 去十八日저녁에崔氏가日寄船宋濟元을訪問하고말하기를『돈을줄모라면욕을먹어야한다나는돈을모아서日本人이나中國人이나주든지鴨綠江에버릴지언정朝鮮社會나朝鮮人은一分도쓰지안켓다』하야서는儒等寺無禮傍若無人의態度를取한다(完)

第二回個人庭球選手權大會

◇日時 大正十五年十月一日、二日

◇場所 南部禮拜堂코ー트

◇申請期限 九月二十九日外지高麗靑年會

◇參加資格 開城郡內의居住者(每組一圓)

◇後援 高麗靑年會

◇主催 東亞日報開城支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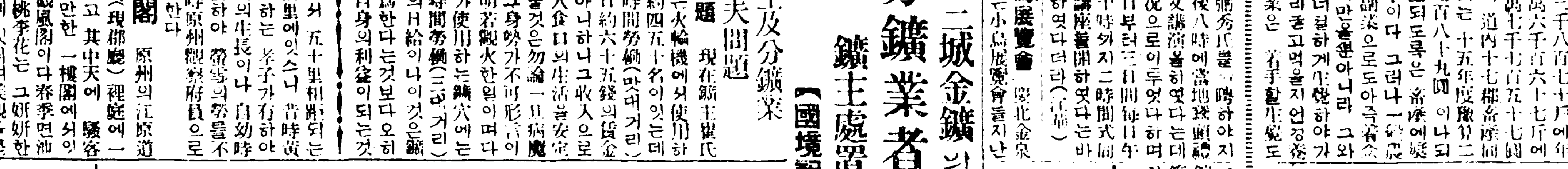
元山市民陸上競技大會

◇時日 十月三日

◇場所 元山第二公普校庭

◇主催 元山奇年會

◇後援 東亞日報支局



痔疾藥 ヒット 히도

東京肛門病院々長 谷 泉先生創製

說明書進呈 谷泉先生述說明書 新聞名記入無代進呈

主効 痔疾藥히도는痔核(치핵)、痔出血(치출혈)、脫肛(탈항)、痔瘻(치루)、裂痔(렬치)、其他肛門內外痔一切에卓効가有함

塗布藥(五十錢、一圓、二圓)

挿入藥(五十錢、一圓、二圓)

內服藥(一圓、二圓、五圓)

ヒット婦人病治療藥(一圓、二圓、五圓)

히도式痔疾반도 一圓

トッカビン本舖 丁子堂藥房 東京銀座新橋町八 大阪市西區立賣堀北

全國藥店及百貨店에잇소

가을이왓다 肛門病 注意를要함.

良藥을選擇하라

●痔疾은生命을빼앗는惡魔、放任하면죽는다

●무엇이라하야도痔疾의藥은히도

●安心하고미드라!—團體한藥効에

●如何한難痔라도自宅에서비지안코、지지안코治療가된다

●良藥을選擇하라世上에는家傳이라거나妙藥이라는??廣告에迷惑치말나

●痔疾은只今이나올時期곳試用하시압

●唯一의權威劑히도

只今이治療의好期 東京肛門病院院長 谷泉

夏季炎熱로發汗이만코黴菌附着等의結果더욱病狀惡化로괴로우신患者에게秋에는왓다!只今이야말로治療의好期이다바라건대藥劑選擇을그릇치지말고、今時에復의光明에浴하라。히도는貴下의選擇할唯一한痔疾藥이다

延專主催 本社後援

第四回全朝鮮中等校陸上競技大會

百餘名健兒들의 榮冠을다투는大競技

어박사의개회사가잇난후 喝采로一貫한大會會場

비로소연희전문학교주최(延專主催)본사후원(本社後援)의 제사회조선중등학교 륙상경기대회(第四回全朝鮮中等學校陸上競技大會)는 예정과가티 이십오일 오전아홉시부터 신촌 연희전문학교 그라운드에서 열리엇다 설백(雪白)의 회장은 그야말로 대회회장(大會會場)은 어서 그 장쾌한 노름이 개시되기를 고대하는듯하고 일반관중들은 일흔아츰부터 뒤를니어 모혀들어 대회의 긔분은 점점 농후하여 가는데 오전아홉시 이십오분 준비하야 란라미의 『옷』 니를 신호로 용감한 선수백여명 (데일고보는 출장치못하고 데이고보는 오후부터 출장한다함) 은 작년우승교 송도고보교를 선두로 장엄한 입장식이 잇슨후 윤치호(尹致昊)씨의 개회긔도와 대회회장 어비신 박사의 개회사가 잇고 련하야 송도고보교로부터 우승배 우승긔의 반환식이 잇슨후 오전아홉시 오십오분부터 만뢰(萬雷)와가치 이러나는 박수소래 가운데 경기는 시작되엇다

트랙部

◇二百米豫選A組
▲一着 白斗珠 廿六秒五分(培)
▲二着 金昌律 (養)

◇二百米豫選B組
▲一着 李昌洙 廿六秒五分四(松)
▲二着 李在男 (養)

◇二百米豫選C組
▲一着 林本城 廿六秒五分二(中)
▲二着 閔泳季 (徽)

◇四百米豫選A組
▲一着 楠正年 一分 (培)
▲二着 月野仲秋 (工)

◇四百米豫選B組
▲一着 朴泰三 一分六秒四(松)
▲二着 李春根 (徽)
▲三着 安炳吉 (養)

◇四百米豫選C組
▲一着 李台承 五十九秒五(松)
▲二着 張振宇 (培)
▲三着 金龍培 (養)

◇千五百米豫選A組
▲一着 崔泳洛 五分三秒(養)
▲二着 李聖熙 (養)
▲三着 鄭泰元 (徽)
▲四着 韓逢來 (工)

◇千五百米豫選B組
▲一着 尹順昌 六分七秒六(松)
▲二着 金正基 (養)
▲三着 池順永 (松)
▲四着 高乘億 (培)

八百米리레—決勝
◇一等 培材高普 (一分四六秒五分五一)
◇二等 養正高普 (一分四九秒)
◇三等 中央高普 (一分五十秒)

필드部

◇鐵彈投射◇
▲一等 金鳳守 十米十二(培)
▲二等 朱炳根 十米十一(養)
▲三等 李台承 十米〇四(松)

南下하는虎疫消息

患者繼續發生

평남환자도진정으로판명 昨朝까지百七十七名

새로히 이십사일 오전열시까지에 경면(?)과 위연면(秀延面)과 희천군 남면(熙川郡南面)과 읍내(邑內)에도 각각 한명식 발생되엇다는데 이십오일 오전열한시 집계에 의하면 총환자 일백칠십칠명으로 의연히 늘어가는 모양인데 긔보한 평안남도 평원군 서해면(平南平原郡西海面)에서 발생된 환자도 이십사일에는 진성으로 결뎡되엿고 이십사일에는 평북운산군운산면(雲山郡雲山面)에서도 발생되엿다는데 방금경찰측에서 도환자를검사하는동시에 소독을하는중이라더라

楚山에五名

초산에도 호렬자가 침입된이후로 현재 사망자 일명을 내이고 환자사명을 발견하게 되엿다는대 아직 판명되지 안이한것도 다수일듯하다더라 (초산)

龍山兵隊에痢疾

십수명이발병하야증환중

시내룡산(龍山)보병칠십팔련대에는 수일전부터 의사적리환자 십수명이 발생되여 평강(平康)으로 련습하려던것도 중지하고 방금 방역에 로력하는중 만연할 념려가잇다고 당국자는 황황하는중이라더라

日本滋賀에 朝鮮人勞組

지난십일에창립

일본자하현 능발천(滋賀縣能發川)에 재류하는 조선인은 그곳에 조선인로동조합(朝鮮人勞働組合)을 조직코저 지난십일오후일곱시에 그곳 오뎐제유공장사택(奧田製油工場社宅)안에서 창립총회를 열엇다는데 회원이 백여명이 모히여 여러가지 차례를 맛치고 재일본조선로동총동맹관서련합회(在日本朝鮮勞働總同盟關西聯合會)에 가맹하는 동시에 명칭을 자하현조선합동로동조합본부(滋賀縣朝鮮合同勞働組合本部)라 하기로 하엿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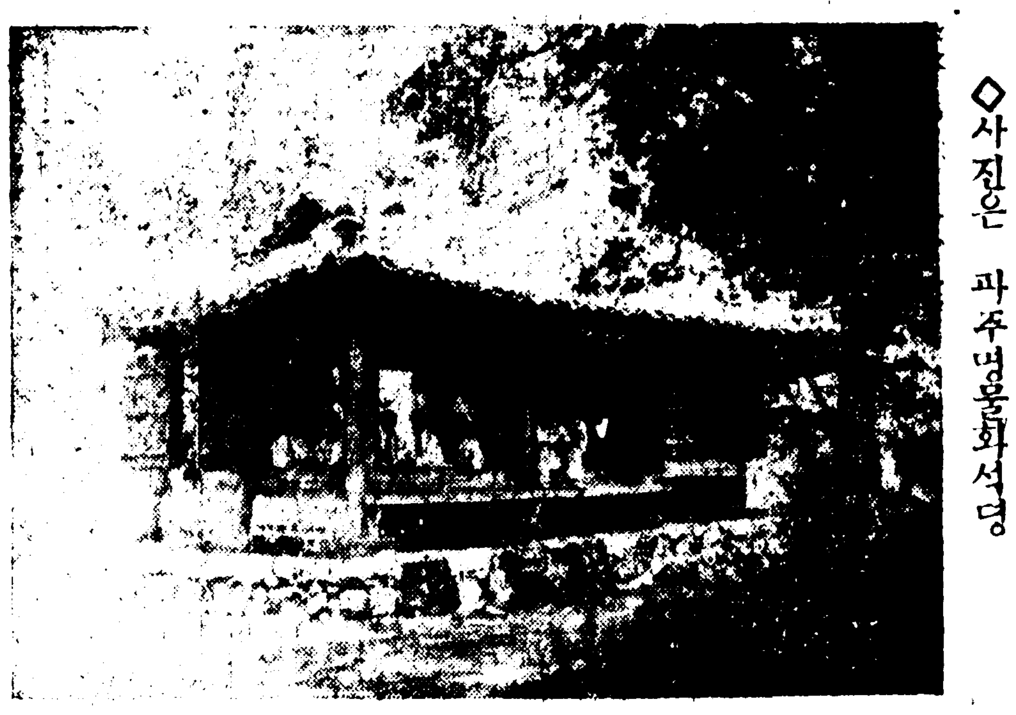
北岳에男子屍

송이따던사람이발견

시내서사헌뎡(西四軒町)일백칠십팔번디 주뎡자(朱貞子)가 작이십사일오후네시경에 북악산에 올라가서 송이를 차저다니든중 한사십가량되여뵈이는 남자시톄가 잇는것을 발견하얏다고 종로서에 보고하얏슴으로 동서에서는 이십오일아츰부터 북악산에 올나가서 삿삿이 뒤저보앗스나 시톄를 발견하지못하얏슴으로 다시 다수한 서원을 파견하야 수색중이라는데 아직은 타살인지 자살인지 알수업다더라

◇同德高女祝賀式

시내관훈동(寬勳洞)에잇는 동덕녀자고등보통학교(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에서는 이번에 또다시 재단법인(財團法人)이 성립되며 교운이 날로 새로워간다하야 이십구일오전열한시에 그학교안에서 축하식을 거행하리라더라



향토례찬 내고을명물 (六二)

臨津江絶壁우에 主人일흔녯亭子

◇坡州名物 栗谷의花石亭

—노래하고시읍든것도녯날이요 선생간후로병화로재되여—

각디방에서 「내고을명물」을소개하여서 아직세상에 널리알려지지못한명물을 사랑하는것이 취미일뿐만아니라 그디방에사는 사람의한이부러하고도 볼수잇다 이러한 회를 어더나도 감월지는 못하나마 우리파주(坡州)의자랑거리를 소개코저한다 우리 파주는 경긔도내에서도 유수한 고을로 녯날에는 목사(牧使)가 잇서서 채칭을하엿섯고 림진강(臨津江)근처에는 임진진(鎭)에는 삼백여명의병사가 항상주둔하여잇섯스며 별장이라는병청 두목이 그병사들을 거느리고 군청을다스리엇섯다 지금도 경의선렬도의 한정거장이 이곳에 잇게되엿고 경로로도 주요한곳에 잇슬뿐아니라 수운(水運)으로도 임진강(臨津江)이 파주의사위를차고돌어서 한포구(浦口)를이루어 배입과가치 경성인천 강화등지에서 어선(漁船)과상선이 수업시출입하며 교통으로도 남부럽지안으리만큼 완비하담니다

◇

권에는 우리파주에게(繼)가유명한 산물이만 맷해전부터는 토질병의중계물이된다하야 게상이를 『파주게』라는소리 지금에는 일절 금지하엿슴으로 도 아조녯애기가되고 말엇습니다 그러나 명물만흔우리고을에 그것뿐이겟슴닛가 화석뎡(花石亭)도 명물이고 림진문(臨津門)도 노치못할 유난것이외다 화석뎡으로 말하면 동방부자라칭한것든 률곡선생(栗谷先生)의 조상되는 강평공리명신(康平公李明晨)씨가 지금으로부터 오백여년전 고려말엽에 지은정자로써 조선명현의한분인 리숙함(李叔瑊)씨가 석정이란명칭을 지은후대대로 네려오다가 률곡선생에와서 유물로 전하여네려 왓섯는데 수십년간 풍마우세에 뎡자의 체면이 못되게되야 률곡선생이 새로중수하여 가지고 그곳에서 여덜살부터 글을닑게 되여 이정자에서 자라낫답니다

◇

그후 조뎡에서 벼슬살때에도 여유가잇스면 이곳에서 글닑고 바둑두고 여러가지 소원을하엿담니다 그후 임진란을 지내엿는데 그당시 조선의 정게는 나날이 변동되고 나라에 가진풍파가 생겨서 우로는 상감을위시하야 신하까지 안심하고 지내는날이 극히적은 피란곡셜이 가장 만흔 때이엿슴으로 이정자에서도 편안치못한 신세가 되엿더랍니다 임진란에는 수업시 병화의연긔속에서 가엽시도 재가되고 말엇더랍니다 그후에 률곡선생의 증손 후지(厚址) 후방(厚坊) 두분이 새로이 화석정을 지여노와서 지금까지 그형상으로 지낸답니다

◇

임진문도 이뎡자와 가치 가진고동과 파란곡절을 겪다가 십여년전에 당국에서 민간에게 팔아 그만 터조차 업서지고 지금은 꼿되는봄과 단풍드는 가을에 속객채리는 유람객만은 일새업시 드나들 뿐입니다 이뎡자밋흐로 흘러흐르는 임진강이야 말로 녯일을 저혼자 아는듯십지요 또한 임진강에서 나는 뱀장어는 새달은손의 낙시대에를 살게됩니다 이뎡자의 이야기를 맛치는동시에 률곡선생의 남기고간 한 시나 한수를 긔록하렵니다

◇栗谷先生八歲作◇

林亭秋已晩、騷客意無窮、遠水連天碧、霜楓向日紅、山吐孤輪月、江含萬里風、塞鴻何處去、聲斷暮雲中

◇投稿者 坡州 洪千吉

◇薄謝 本報購讀券 三個月分

◇訂正 작지본란에소개된 명물부신비래력의 뎨목에 복벽(復辟)이란 벽(辟)자가 벽(僻)자로 오식이 되엿기 정정합니다

投稿繼續受理
내고을명물투고

第四回全朝鮮女子庭球大會

◇大會場所 京城運動場코—트
◇參加資格 公私立中等程度學校
◇出戰組數 一校三組(候補一組)
◇大會用球 角一改良球
◇準用規則 從來의軟式庭球規則 (但코—트의長廣과넷트의高는改定規則을準用함)
◇申請期日 九月卄六日까지本社事業部에 (校名選手의氏名、年齡、學年別、地方別、監督者氏名及昨年大會에參加與否等을明記할事)
◇相對抽籤 九月卄八日本社에서

◇時日十月一日◇ 主催 東亞日報社

◇陸上競技大會畵報◇

(1) 용감한백여선수의입장하는광경
(2) 『스타—트』의찰라
(3) 일이등을다투는선수들의분투

內外航空界

橫斷機燒失後 佛國再次製機

긔보=뉴욕(紐育) 파리(巴里)사이의 대서양 횡단비행에 회재로인하야 일시중지하엿스나 그비행긔를 제작하엿든 『술스키』씨는 다시 그갓튼 비행긔두채를 맨드러 횡단비행을 다시거행할것을 성명하는동시에 횡단비행을 하고저하든 『호웅쑤』대위도 비행긔가 완성되는 대로 다시 횡단비행할뜻을 성명하엿다더라(파리뎐보)

三角飛行練習

조선비행련습소의 삼각비행사는 이십육일 경성(京城)을출발하야 남천(南川)에 도착하야 그이튿날인 이십칠일에 다시 남천을떠나 해주(海州)로갓다가 이십팔일에 해주서 도라올예뎡이라더라

劉飛行士訪鄕飛行

비행사 유훈면(劉勳冕)군은 작이십오일에 해주고향방문비행을 하엿다더라(해주)

郵便機出發延期

조선데신국 착뎐에의하면 조선만주일본의련락 우편비행긔는 이십육일에 대련(大連)을출발할 예뎡이엿스나 비로말매암아 출발을연긔하엿다는데 출발긔일은 아즉미뎡이라더라

衡平全國大會

위선작일오전에집행위원회

시내운니동(雲泥洞)형평사중앙본부(衡平社中央本部)에서는 작이십오일부터 전국림시대회(全國臨時大會)를열고 그준비로위하야 작이십오일오전열한시에는 동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하엿고 이에곳대회를 시작하엿다더라

權一重君渡米

시내사직동(社稷洞)구십이번디 권일중(權一重)(三)군은 작이십오일오전열시 부산행렬차로 떠나 십일사일에 횡빈(橫濱)에서 『메듸손』호로 미주를 떠나리라는데 군은 일즉이 배재고보를 졸업하고 이번에 모교의 교비로 미국 『씨우드』에 코다주휴론대학 영문과를 졸업한후 미시간대학에서 연구할예뎡이라더라(사진은권일중군)

離婚하고被訴

장인의인장을위조하고는 소송을당한보통학교훈도

평남강서군 증산면무본리(平南江西郡甑山面務本里)김응전(金應銓)의맛아들 김병도(金炳兜)는 팔년전에 평북초산군 도원면 회목동(平北楚山郡桃源面檜木洞)리원백(李元伯)의 맛딸길형(節瑩)과 결혼한후 두살먹은 아들까지 나엇다는데 김병도는 몃해전에 황해도 신계군(黃海道新溪郡)공립보통학교에 훈도로잇든중 지난팔월에 하긔방학을 리용하야 자긔집에 도라가서 리혼수속을 마치고 자긔처를 그면면소에 가서 리혼수속을 마치고 안해를 내여쪼찻다는데 리길형의 부친 리원백씨는 평양검사국에 김병도를 걸어 인장위조죄로 고소하는 동시에 평양디방법원에 리혼무효확인소송을 뎨긔하려고 방금수속중이라더라(북진)

◇團體와集會◇

▲中央禮拜堂講演會 미감리교 감독『웰취』박사를 칭빙하야 금이십륙일오전 열한시부터 『교훈을실행하자』는 문뎨로 강연이 잇슬터이며 동일 오후일곱시반부터는 동교회목사 김영섭(金永燮)씨의 『인생의화복』이라는 문뎨의 강화가 잇다고

▲看護婦科卒業式 오는이십팔일 오후두시로부터 총독부의원 의과본관에서 거행하리라는데 조산부과(助産婦科) 이십일회졸업식도 동시에거행

▲向上館洋服洋靴科卒業式 이십륙일오전열시부터 텬연동(天然洞) 그회관에서거행

▲水標禮拜青年講演 이십륙일 오후여덟시부터 수표뎡그례배당에서 황귀학(黃龜鶴)씨가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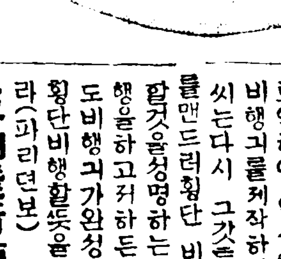
▲鍾路青年會日曜講話 이십륙일오후 세시부터 김창제(金昶濟)씨가강연

▲尹旺善氏追悼會 안국동과독칭년면려회 주최로 이십륙일오후여덟시반부터 안국동 그례배당에서거행

▲佛教留學生創立紀念講演 시내수송동(壽松洞)각황사(覺皇寺)안에잇는 불교유학생 중앙학우회에서는 창립뎨일회긔념강연회를 작이십오일 오후일곱시부터 각황사안에서 열엇다는데 자미잇는 여흥도 만엇다더라 演題 白頭山과佛教 演士 崔南善

▲天道教柔道部開館 경운동(慶雲洞) 텬도교청년당유도부는 오는십월일일부터 개관하리라더라

男女의 生殖器 短小衰弱의復活



包茎은從來手術하여야 ... 說明書無代進呈
◇新藥移轉 東京新療法研究所 東京芝區神谷町十八 電話青山六六六七番 大阪堂島中二丁目 大阪支部

有利好職 男女의一日收三圓內外 特約店募集 大阪玉造 豐國總本店

總督府及各道郡衙指定品 ニノミヤ發動式石油發動機 ニノミヤ高級粉摺機 セントリーヒューガルポンプ バーチカルポンプ 日下部式精米麥粟碑機及製粉機 右各機當分間破格割引提供하오니機勿逸하라乞注文

ニノミヤ式 一馬力부터五十馬力外지 各種在庫多數 (型錄進呈)
地方特約店募集 京城府西界洞三三 京城鐵工所 電話龍山三三三番 京城府南門外 京城鐵工所營業部 電話本局九四一番

エキストラー 萬年筆!
本品一本을貴下의座右에備置하시요 곳貴下의光明과幸福을增進할것이다
에기스도라—萬年筆은 펜尖이미끄럽게 輕快하고 耐久力이 만흔理想的品質과 低廉한價格은他品의追從을不許함
市內及接續町은電話又는葉書로注文하시면곳送呈합니다
進呈 萬年筆의選擇法其他萬年筆에關한重要記事를記載한 菊版洋裝十四頁의小冊子에는 約一五十餘種의實物大寫眞을揭載 本紙名記入申込次第郵送함
エキストラー萬年筆本舖 東京小石川 門盛進堂製作所

洋服 既製洋服 사—지 코—트 오—버 돈비

通信販賣 東京下谷 小林洋服店

小松痔疾藥
痔疾의恐怖… 自宅治療法…
小松痔疾藥 全國各地藥店에有함

朝鮮米作豫想

一割假量收穫增加

◇大約一千五百萬石

今年度朝鮮米作第二回收穫豫想은二十四日秋分日現在로目下各道에서總督府에各各報告中인바京畿,忠北,平南,咸北四道外는全部報告되엿는바此를前年實收高에比하야增加量示하야大約一千五百萬石으로平年作보다約一割增收豫想이며目下分明한道別은아래와갓더라

	第一回豫想	前年比較
慶北	二,一九八,〇五〇	九分八厘增
慶南	二,二〇〇,一〇〇	二割四分增
全北	一,八〇〇,八〇〇	三分五厘增
全南	二,四三二,一六五	六分六厘增
忠南	一,四〇〇,八八八	一分四厘增
咸南	四〇三,〇九九	六厘減

日本도增收

二千二百萬石

十月初農林省發表

九月二十日現在今年第一回米收穫豫想高는今月外지의各地報告를綜合하야十月初旬에農林省에서發表할터인바目下의形便으로는平年에比하면五分以內의增收가豫想되야六千二百萬石은不下할것이며形便에따라서는二百萬石突破하리라고豫測되는바從來의第一回豫想高는아래와갓더라(東京電)

十四年	六一,四九七千石
十三年	五八,一三九千石
十二年	五八,二六五千石
十一年	六二,六三八千石
十年	五八,〇六八千石
九年	六三,四九八千石

鮮銀券統一

朝鮮影響

朝鮮과臺灣의銀行券統一에는
(一)從來中樞金融機關을根本的으로改廢하야日銀에統一할일
(二)現存中樞機關은그대로두고銀行券만統一할일
의二案인바第一案이가장理想的이나아래와갓흔事情이잇는結果目下에는第二案을採用할모양이다
(一)鮮臺의經濟事情이아즉相當히進步치못하야擔保物件도적고
(二)日本銀行法의根本的改善을必要로하는일
(三)日銀의行政組織을改定하고監督權의改正도必要할일
此際第二案에依하야銀行券이統一될때에念慮되는것은朝鮮銀行은五百萬圓의保證準備發行을停止케됨으로그만큼不利하고따라서全鮮의金融에不利가잇슬것갓흔바現在의鮮銀은整理에努力하는外部的에는何等에問題가업스나將來의影響은잇슬것이라더라

營業稅問題를

京城商議硏究

吉田仁川,渡邊京城兩會議所會頭는營業稅問題에對하야二十三日午前總督府에草間財務局長을往訪하고陳情케된바그會見結果는아래와갓더라

◇財務局長 財界不振時增稅는不得已한것으로十六年度豫算編成에는昨年의臨時補充金六百萬圓이업고本年은稅制整理하야此를補塡하려고大藏省과一種約束에基因하야此增稅가되는것이니增稅를延期又는中止하면新規事業의道路와治水豫算도中止케될것이라

◇渡邊會頭=京城會議所는十六年度新規豫算에增稅할은鐵道十百萬圓私鐵買收一百萬圓의中此의私鐵은御干二百萬圓을他로移轉하고小運搬等의不振을見하여此는我等要求에人夫休業其他로[illegible]

綿絲大慘落!

米棉增收發表로

畢竟二百圓大臺割

米棉增收豫想外[illegible]

鮮內木材需給

發着二十一萬噸

朝鮮木材需要는事業界가進展함에따라逐年漸增하야最近一箇年間의發着數量은二十一萬噸이라하고此荷動總噸數는二十一萬二千噸이라더라

◇主要地發送

金銀輸出超過

八月中四百餘萬圓

總督府稅務課에서調査한今年一月以後八月末日外지金銀의輸移出은四百八十六萬五千七百九十六圓으로輸移入은二十六萬二千二百六十二圓이며[illegible]

産米增殖資金

全部貸出終了

朝鮮의産米增殖計劃으로預金部에서今年度支出인八百五十萬圓中土地改良資金五百十四萬六千圓은東拓과殖産銀行의中勘業으로이미決定하야[illegible]

靑島鹽取扱商

中國側增加

臨時輸出工業鹽과朝鮮向輸出鹽二十萬噸中十六萬噸에對한輸出鹽取扱中國鹽商은中國當局에서從來와가치指定되엿슴으로[illegible]

米棉增加豫想

◇千五百八十萬俵

米國農務省에서發表한米棉第六回豫想은作況九分五厘[illegible]

中旬鐵道在貨

商品擔保貸出

現物增證券減

肥料補助決定

總額十九萬七千圓

精米聯合會陳情

朝鮮米

前場頑强

後場少落

反動이亦一巡?

各店倭合

當地依然頑强

將次大勢如何

賣買方所見各異

大阪期米

東京期米

米豆途曇

株式

前場大慘落

綿絲大崩壞影響

◇京取一圓低◇鐘新五圓二十錢低◇大新二圓七十錢低

諸株新低價

後場一服

鐘新五圓低落

當物十錢先物五圓의大慘落

底價不知觀

繼續的下押

京取追隨軟調

二十五圓臺

各地延取引

京城綿絲布市勢

穀物市況

正米暴騰

在米减少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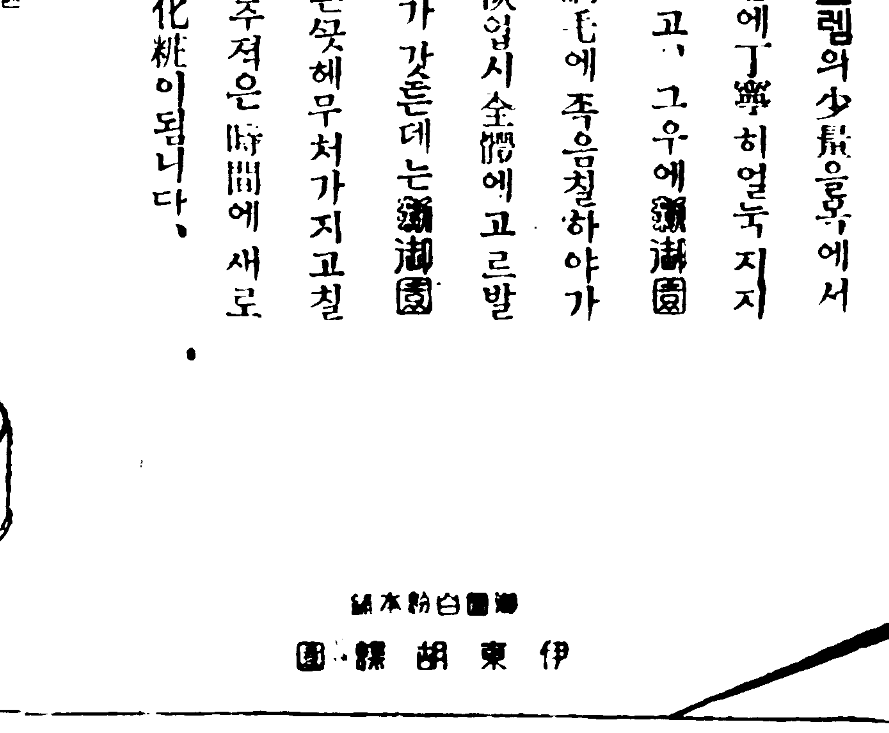
滿洲大豆狀況

仁川正米市勢

今日小說休載

新御園の花

신미소노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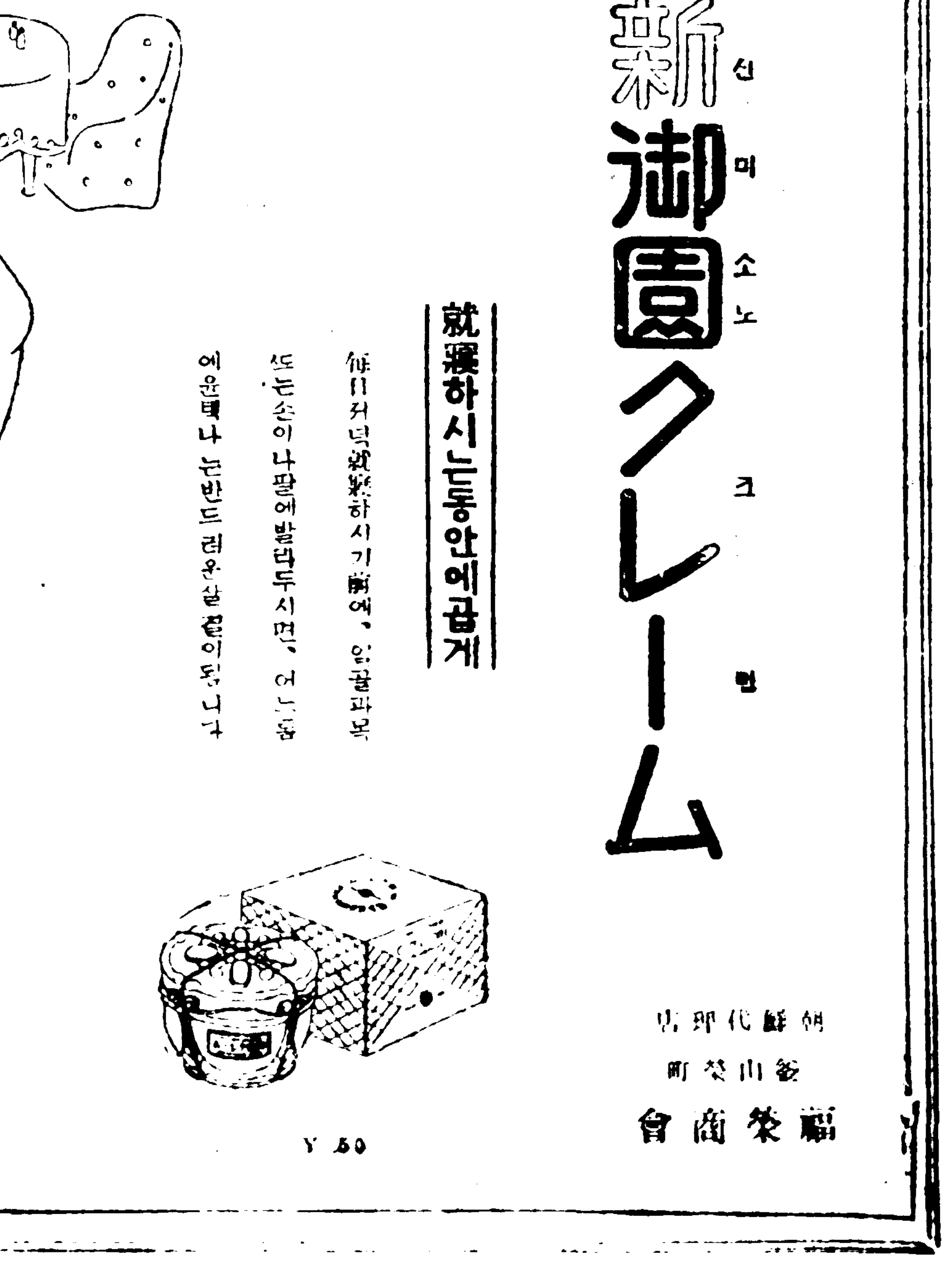
아름다운化粧을
生氣잇게하는데
第一조흔것은

純無鉛가루白粉
新御園の花

輕便하고 아름다운 新化粧法

新御園크림의少量을손으로부터얼골에丁寧히얼눅지지안케발으고、그우에新御園의花를刷毛에조음칠하야가지고、濃淡업시全體에고르발으고머리가갓흔데는新御園의花를손끗헤무처가지고칠하면、아주적은時間에새로운淸快한化粧이됨니다、

御園白粉本舖
伊東胡蝶園



新御園クレーム

신미소노크림

就寢하시는동안에곱게

每日저녁就寢하시기前에、얼골과목또는손이나팔에발러두시면、어느틈에윤택나는반드러운살결이됨니다

朝鮮代理店
釜山榮町
福榮商會